

제12장 청소면(靑所面)

본래 보령군 지역으로 청소면이라 하여 의식리(衣食里), 도원리(桃源里), 홍도원리(紅桃源里), 마동(麻洞), 석포리(石浦里), 죽림리(竹林里), 풍정리(楓井里), 재궁동(才宮洞), 성당리(聖堂里), 청연리(淸淵里), 양지리(陽地里), 음지리(陰地里), 성동(城洞), 신평리(新坪里), 논향리(論香里), 건정리(乾井里), 어전리(於田里)의 1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척면(長尺面)의 중리(中里), 신리(新里), 송동(松洞), 내상리(內上里), 송암리(松岩里), 외상리(外上里), 진목정리(眞木亭里), 마참리(馬站里), 사동(巳洞), 화하리(花下里), 후동(後洞), 통곡(桶谷), 내곡리(內谷里), 석반리(石磻里), 남현리(南峴里), 비야평리(飛野坪里), 장좌동(長佐洞), 망선동(望仙洞), 조곡리(鳥谷里), 구수동(九水洞)의 20개 동리와 오천군(鰲川郡) 천동면(川東面) 석현리(石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죽림(竹林), 재정(才井), 성연(聖淵), 정전(井田), 신송(新松), 진죽(眞竹), 야현(野峴), 장곡(長谷)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동쪽은 청라면과 홍성군 장곡면(長谷面), 남쪽은 청라면(靑蘿面)과 주포면(周浦面), 서쪽은 오천면(鰲川面)과 천북면(川北面), 북쪽은 천북면(川北面)과 홍성군의 은하면(銀河面)·광천읍(廣川邑)에 접한다.

- 청소면(靑所面) : 보령현 북쪽에 있던 면. 현재의 청소면 성연리, 재정리, 죽림리, 정전리 지역이다.
- 장척면(長尺面) : 보령현 북쪽에 있던 면. 현재의 청소면 장곡리, 진죽리, 야현리, 주포면 마강리, 보령리, 봉당리 지역이다.

1. 성연리(聖淵里)

본래 보령군 청소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당리(聖堂里), 청연리(淸淵里), 양지리(陽地里), 음지리(陰地里), 성동(城洞)을 병합하여 성당과 청연의 이름을 따서 성연리라 하고 청소면에 편입하였다.

- 가항(加項) : 던목고개 밑에 있는 마을의 옛 이름. 요즈음은 성당으로 부른다.
- 가항리(加項里) : 던목고개 밑에 있는 마을의 옛 이름. 요즈음은 성당으로 부른다.
- 간향말보 : 성연저수지 제방 서쪽에 있는 보. 갯변말 남쪽에 있는 간향말들에 물을 댄다.
- 간향말산 : 성연저수지 제방 남쪽에 내민 산줄기.
- 갈미봉 : 단자골 마을 남쪽에 있는 봉우리. 쪽재발꼭대기의 북쪽 봉우리이다. 높이 220.7m이다.
- 갯굴 : 성굴 남쪽에서 오서산으로 향한 골짜기. 넙티 북쪽의 첫 골짜기이다.
- 강서낭골 : 성연리 성당 마을의 북쪽 끝. 문수골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강선암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강선암 : 문수골 마을 북동쪽에 있던 옛 절이다. 일제시대 금광터에 왕할머니라고 불린 노인이 세웠다. 현재는 없어진 암자이다.
- 개구리샘굴 : 성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뱀재등과 원절굴 사이에 있다.
- 갯변말 : 성연리의 서쪽 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 마을의 대부분은 하천(진죽천)의 북쪽, 도로의 남쪽에 있다.
- 갯변보 : 성연저수지 수물선 근처에 있던 보. 중보와 상보 사이에 있었다.
- 갯인보 : 성연저수지 서쪽에 있는 보. 귀목보와 간향말보 사이에 있다. 갯변말 남쪽 갯인들에 물을 댄다.
- 건쟁이보 : 진죽천에 있는 보. 성연리의 서쪽 끝, 통봉의 남쪽에 있다. 건쟁이들에 물을 댄다.
- 게거름재 : 턱굴에서 재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꼭대기에는 서낭당이 있다.
- 고랑말 : 미리재 마을의 일부분.
- 고래들 : 성연저수지 서쪽 양지편 남쪽에 있는 들. 저수지 제방 안쪽에 있던 고래보에서 물을 댄다.
- 고래보 : 성연저수지 제방 안쪽에 있던 보. 양지편 앞 고래들에 물을 대었다.
- 공바탕 : 미리재 안고랑의 북쪽 산 사면. 평평하여 밭으로 개간되기도 하였다. 옛날 공을 치던 곳이다.
- 광치(廣峙, 넙티) : 넙티 <1911, 朝鮮地誌資料>
- 광치점(廣峙店, 넙티주막) : 넙티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군관미(軍官미) : 궁갈미의 다른 이름.

- 군관산(軍官山) : 궁갈미 북쪽의 산봉우리. 높이 137.5m이다.
- 궁갈미 : 성연저수지 북쪽 마을. 새재 마을과 북덕고개 사이에 있다.
- 궁갈미고랑 : 궁갈미 마을 북쪽 골짜기.
- 귀목보 : 갯변말 남쪽에 있는 보. 건쟁이보와 갯인보 사이에 있다. 성연리 서쪽 귀목들에 물을 낸다.
- 길마재 : 음지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청라면 옥계리 길마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김계환효자비(金啓煥孝子碑) : 궁갈미 마을과 새재 마을 사이의 백호뿔에 있다. 김계환(金啓煥)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호(號)는 오운(烏隱)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신명(神明)의 덕으로 한겨울에 계를 구하고, 얼음 속에서 고기를 얻어 부모를 공양한 기적이 있었다.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 꽃번들 : 음지 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사면. 선마길로 오르는 길이다. 진달래 꽃이 많이 피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냇티 : 성연리 성굴에서 청라면 황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청라와 청소간 포장 도로가 지난다.
- 농막굴 : 성당 신암터의 북쪽 골짜기. 강서낭굴과 안옥굴 사이에 있다.
- 누에머리 : 오서산 남쪽 즉, 성굴 마을 동쪽에 있는 능선.
- 능정굴고개 : 턱굴에서 정전리 능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 단자골 : 청연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단자골다리 : 새재 마을 앞 도로에서 단자골로 들어가는 다리.
- 단적동(短笛洞) : 단자골의 한자 표기.
- 달돋는바위 : 음지 마을 동북쪽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이다. 성연저수지 제방으로 내려온 산줄기의 꼭대기이다. 이곳에서 달이 올라와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너머 : 음지 마을 작은 당산 너머에 있는 마을. 사당굴의 북쪽이다.
- 대숲피 : 성당 마을 북쪽, 부영재산과 태봉산 사이의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
- 던목고개 : 성당 마을 북쪽 문수골 마을에서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중상골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275.0m이다. 옛날 청라면에서 광천으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옛 지리지에는 가항(加項)으로 표기하였다.
- 던목고개골 : 던목고개 남쪽 골짜기.
- 도둑의성 : 성굴 마을 동북쪽 산수굴과 장대백이 사이인 성연리 산 32번지 일대이다. 높이 2.4m 길이 50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다.

- 독보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보. 고래보와 방아보 사이에 있었다.
- 독자굴 : 용못 마을 동쪽, 성굴 마을 입구에 있는 진펄의 동북쪽 골짜기.
- 뒀언덕 : 성굴 마을 입구에 있는 언덕.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경사를 줄이기 위하여 다리 공사를 하고 있다.
- 뒀들 : 음지 마을 남동쪽에 있는 평평한 골짜기. 사당골과 꽃번들 사이에 있다.
- 만장암(萬丈岩) : 성당 마을 산제당굴의 7부 능선에 있었다. 상봉의 서쪽 밑이었다. 1959년에 창건하였으며 현재는 없어진 암자이다.
- 매바위 : 성굴의 남쪽 샷갓봉 동북쪽에 있는 바위.
- 문수굴 : 성당 마을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전에 문수암(文殊庵)이 있었다고 전한다.
- 문수동(文秀洞) : 문수굴 <1911, 朝鮮地誌資料>
- 미륵산 : 청연저수지 제방 북쪽의 산. 북덕고개의 남쪽 산이다. 양지편산이라고도 부른다.
- 미리재 : 성연저수지 속에 있던 마을. 20여 호가 거주하였으나 저수지 축조로 모두 이주하였다.
- 미리재보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보. 독보와 중보 사이에 있었다.
- 미리재인삼굴 : 미리재 안고랑에서 동쪽으로 뻗은 넓은 골짜기. 단자굴의 인삼굴과 구분하여 미리재인삼굴이라고 한다. 부르기는 보통 「인삼굴」이라고 한다.
- 미이치(美伊峙) : 미리재의 한자 표기.
- 방아보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보. 독보와 미리재보 사이에 있었다.
- 백호뿔 : 궁갈미 마을과 새재 마을 사이에 있는 산줄기의 끝. 광산인 김계환 효자비가 있다.
- 뱀재등 : 갓굴 북쪽에 있는 산 능선.
- 봉현(鳳峴) : 새재의 한자 표기.
- 부영재산 : 성당 마을의 북쪽 대숲피와 저승굴 사이에 있는 산.
- 부연(釜淵, 가마뚝병) : 성당 가마뚝병 <1911, 朝鮮地誌資料>
- 북덕고개 : 양지편과 궁갈미 사이에 있는 고개. 소라도로라고 불리는 청소와 청라를 연결하는 도로가 통한다.
- 불당굴 : 단자굴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갈미봉의 북쪽이다.
- 빙애길 : 음지 마을에서 간향말산, 원닥골을 거쳐 점터굴을 지나 청라면 옥계리·황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유재라고도 한다. 벼랑(급경사지)의 옛말이 빙애이다.

- 사당골 : 음지 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의번들과 뒷들 사이에 있다.
- 사당골 : 음지 마을 작은당산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위에 작은 저수지가 있다.
- 산수골 : 오서산의 서쪽, 성굴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제당 : 성굴 마을 동쪽에 있는 산제당골 7부 능선에 있었다. 당집은 없고 돌에 떡시루 등 제물을 놓고 제를 지냈다. 1980년대까지 정초에 택일을 해서 지냈다.
- 산제당골 : 성당 마을의 동쪽 골짜기. 골짜기의 중간에 산제당이 있었다. 근래에 제당을 벽돌로 지었으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부수었다. 1980년대부터 지내지 않는다.
- 샛갯봉 : 인삼굴 꼭대기의 다른 이름. 성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상보 : 용못 바로 밑에 있는 보. 청연저수지 북쪽 도로 남쪽 들에 물을 댄다.
- 상보들 : 성연저수지와 궁갈미 마을 사이에 있는 들. 상보에서 물을 대었다.
- 상봉 : 오서산 정상을 부르는 이름. 삼각점이 있다. 높이 790.7m이다.
- 상봉치(上鳳峙) : 큰새재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보 : 용못 북쪽, 성당 마을 입구에 있는 보. 새재 마을 앞 들에 물을 댄다.
- 새암골 : 용못 북쪽 성당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남쪽의 작은 새암골과 북쪽의 큰새암골로 구분된다.
- 새재(큰새재) : 성당 저수지 북쪽에서 죽림리로 넘어가는 고개. 성연리 새재 마을에서 재정리로 넘어가는 새재(작은새재)와 구분하기 위하여 큰새재라고 부른다.
- 새재 : 궁갈미와 용못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새재고개(작은새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광산 김 씨가 세거하였다.
- 새재고개(작은새재고개) : 궁갈미와 용못 마을 사이의 새재 마을 북쪽에 있는 재. 재정리 늪적골로 통한다.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다.
- 새재골 : 새재(큰새재) 남쪽 골짜기. 논과 밭이 해발 200여 m까지 개간되어 있다.
- 서낭댕이 : 성굴 마을 입구와 용못 사이에 있었다. 신수는 잡목이었고 많은 돌이 쌓여 있었다. 청소와 청라간 도로가 지나게 되어 없어졌다.
- 서낭댕이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미리재 마을 북쪽에 있었다. 큰 길가에 있던 성황당이다. 담불과 고목이 있었으나 모두 수몰되었다.
- 서낭댕이 : 턱굴과 재정리 사이의 게거름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로 모과나무가 있다.
- 선마질 : 음지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고개. 청라면 옥계리 · 황룡리로 통한다 고갯마루에 삼각점이 있다. 높이 299.5m이다.
- 성곡(城谷) : 성굴의 한자 표기.

- 성굴 : 오서산 서쪽 사면의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동북쪽에 있는 도둑의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성당(聖堂): 오서산 서쪽 사면의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 유명한 학자인 성당(性堂) 정혁신(鄭赫臣)이 거주하던 곳이라 그의 호를 따서 성당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밭에서 주춧돌 8개와 기와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주춧돌 한변의 길이가 1m 정도 되었다고 전한다.
- 성당리(聖堂里) : 성당 마을.
- 성당저수지 : 용못 마을 북쪽, 성당 마을 입구에 있는 저수지.
- 성동(城洞,성골) : 성굴 <1911, 朝鮮地誌資料>
- 성연1리 : 1반 성골, 2반 문수골, 3반 성당리, 4반 단작골 새재.
- 성연2리 : 1반 속뜸, 2반 이막재, 3반 양지편, 4반 강변마을.
- 소의번들 : 음지 마을과 길마재 사이의 평평한 지형.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 승당 : 성당(聖堂)을 주민들이 부르는 말.
- 시남터(侍男터) : 신암터의 한자 표기.
- 신안리(新安里) : 신암터 <1911, 朝鮮地誌資料>
- 신암터 : 성당 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
- 아차산 : 던목고개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 죽림리와 성연리, 홍성군 광천읍의 경계이다. 삼각점이 있다. 높이 424.4m이다.
- 안고랑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미리재 마을의 남동쪽 부분.
- 안글 : 양지편 마을 앞 도로 북쪽의 들.
- 안산 : 용못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낮에 용못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밤에 불을 피우고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높이 187.0m이다.
- 안옥골 : 성당 마을의 동쪽 산제당굴과 농막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앞산 : 성당 마을 남쪽에 있는 산줄기. 장대백이에서 용못으로 향한 산줄기이다.
- 양지리(陽地里) : 양지뜸의 한자 표기.
- 양지편 : 성굴 마을의 북쪽 부분.
- 양지편 : 성연리의 서쪽에 있는 마을. 남쪽에 있는 음지와 비교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양지편 산과 턱굴 사이에 있다.
- 양지편산 : 북덕고개 남쪽에 있는 산. 이 산에 이어 성연저수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영구렁 : 음지 마을의 북쪽 부분. 임보굴의 아래쪽이다.
- 오서산(烏棲山) : 성연리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다.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이 경계한다.

- 오성산성(五星山城) : 조선지리지자료에 고려때 쌓은 성으로 기재됨. <1911, 朝鮮地誌資料>
- 오수산 : 오서산의 다른 이름.
- 용못 : 성연 마을의 중심에 있는 연못. 성골과 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이다.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깊게 침식되었다. 예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 용못 : 용못 주변에 있는 마을.
- 용바위 : 용못 옆에 있는 바위.
- 용연(龍淵,용못) : 용못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연점(龍淵店) : 용못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용연참(龍淵站,용못참) : 용못참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담골 : 성연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간향말산과 점터굴 사이에 있다.
- 원절골 : 성골 마을 남동쪽 골짜기. 산제당골과 개구리샘골 사이에 있다.
- 유재 : 빙애길의 다른 이름.
- 육골 : 음지 마을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음지 마을과 성연저수지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음지(陰地) : 1960년대 성연리 2구(淸淵, 陰地) 중 1구.
- 음지 : 성연리의 남쪽 질마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당산너머, 짙은굴, 이막재, 속뜸, 영구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음지리(陰地里) : 음지의 한자 표기.
- 음지저수지 : 음지 마을 사당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
- 이막재 : 음지 마을의 가운데 부분. 짙은굴과 속뜸 사이에 있다.
- 인삼골(단자골인삼골) : 단자골 마을 동쪽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뻗은 넓고 평평한 골짜기. 미리재인삼골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자골인삼골이라고 한다.
- 인삼골꼭대기 : 미리재인삼골과 단자골인삼골의 꼭대기이다. 높이 382.2m이다.
- 임보골 : 음지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꽃번들과 큰골 사이에 있다.
- 작은고개 : 단자골에서 성골로 넘어가는 고개.
- 작은당산 : 음지 마을 안에 있는 낮은 산. 당산너머와 이막재 사이에 있다. 큰당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도 제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작은새암골 : 용못 마을 북쪽, 성당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장가바위 : 용못 삼거리 서쪽에 있던 바위 . 총각이 돌을 던져 올라가면 장가를 가고,

올라가지 못하면 장가를 못 간다고 하여 여럿이 돌을 던지며 장난을 하던 바위이다.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다.

- 장대백이 : 성굴 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오서산의 서쪽 사면에 돌출한 봉우리이다. 이곳의 남쪽에 도둑의성이 있다.
- 저승굴 : 성당 마을 북쪽 문수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점 : 새재 마을 동쪽 부분. 과거 용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점모탕이 : 새재 마을에서 용못 마을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 점터굴 : 성연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의 윗부분.
- 중보 : 성연저수지 안에 있던 보. 미리재보와 갱변보 사이에 있었다.
- 지계덕굴 : 넙티 북쪽의 골짜기 윗부분을 통칭하는 말.
- 진필 : 용못 마을 동쪽, 성굴 마을 입구에 있는 들.
- 짐바굴 : 단자굴 마을의 북쪽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취락을 일컫는 말.
- 짚은굴 : 음지 마을의 남쪽 부분.
- 쪽재발꼭대기 : 미리재인삼굴과 단자굴인삼굴 사이에 있는 봉우리이다. 높이 304.7m이다. 큰고개의 서쪽 봉우리이다.
- 참나무쟁이 : 청연저수지 제방의 북쪽 부분을 과거에 부르던 이름.
- 청룡날 : 성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줄기. 원절굴과 성굴 마을 사이에 있는 낮고 평평한 산줄기이다. 초지와 과수원으로 개발되었다.
- 청연(淸淵) : 1960년대 성연리 2구(淸淵, 陰地) 중 1구. 용못 마을의 옛 이름.
- 청연리(淸淵里) : 용못 마을의 옛 이름.
- 큰고개 : 단자굴에서 인삼굴을 통하여 샷갯봉 밑을 지나 넙티로 통하는 고개.
- 큰고개 : 미리재인삼굴과 단자굴인삼굴 사이의 고개.
- 큰굴 : 음지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달돋는바위로 향한 골짜기이다.
- 큰당산 : 음지 마을과 정전리 논향굴 사이에 있는 산. 음지 마을의 당산인데 노인 들도 제 지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음지 마을 가운데에 작은 당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 이 마을에는 큰당 작은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큰새암굴 : 용못 마을 북쪽 성당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태봉산 : 성당 마을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189.5m이다.
- 턱굴 : 성연리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이다. 정전리와의 경계지역이다. 골짜기의 아래쪽은 정전리에 속한다.

- 통봉 : 음지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산 봉우리. 높이 125.7m이다.
- 통봉 : 성연리의 서쪽 끝 도로변에 있는 작고 독립된 봉우리. 높이 63.5m이다.
- 하봉치(下鳳峙, 즈근시지) : 작은새재. <1911, 朝鮮地誌資料>
- 할닥고개 : 새재(큰새재)에서 문수골 쪽으로 난 고개.
- 할닥고개골 : 할닥고개가 통하는 고개. 새재골의 북쪽이다.
- 함정모랭이 : 궁갈미 마을 남서쪽 청연저수지 제방을 이은 산 모랭이. 성연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홍굴 : 성당 마을 동쪽 골짜기. 장대백이의 북서쪽에 있는 첫째 골짜기이다.



성당(1996)



문수골의 창덕궁 말뚝(1997)



용못(1996)



음지(2008)

2. 신송리(新松里)

본래 보령군 장척면(長尺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리(中里), 신리(新里), 송동(松洞)을 병합하여 신리(新里)와 송동(松洞)의 이름을 따서 신송리라 해서 청소면에 편입되었다.

- 가운데말 : 고잠 마을의 중앙부. 마을 회관이 있다. 아랫말과 윗말 사이에 있다.
- 간사지 : 고잠 중심 마을 서쪽 간척지 주변에 있는 가옥을 통칭하는 말. 도랑굴과 같이 쓰인다.
- 간사지 : 소릉굴 마을 북쪽 간척지 주변에 있는 마을.
- 간사지 : 소릉굴 마을 북쪽에 있는 간척지.
- 간사지 : 통미 마을 서쪽에 있는 간척지. 20여 년 전에 제방을 축조하였다.
- 감나무굴 : 소릉굴 진고랑의 남쪽 가옥이 있는 부분.
- 갯모랭이산 : 소릉굴 동쪽 마을에 있는 산. 재정리 송산과 마주하는 산이다. 간척지 속에까지 산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
- 고잔 : 고잠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부르는 이름. 곶의 안이라는 의미이다.
- 고잠(高岑) : 1960년대 신송리 2구 (元安, 高岑) 중 하나.
- 고잠 : 신송리 서쪽의 중심 마을이다. 낮은 구릉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도랑굴, 아랫말, 가운데말, 윗말, 독굴로 구성된다.
- 고잠간사지 : 신송간사지의 다른 이름. 고잠 마을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잠저수지 : 고잠 마을 독굴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이곳은 일제시대에 만든 간척지이다. 논으로 이용되다가 신송간사지(吉田이간사지) 축조와 함께 저수지로 만들었다.
- 구역말 : 원안 마을의 북쪽 부분. 서낭댕이의 서쪽이다.
- 길전이간사지 : 신송간사지의 다른 이름. 간척지를 축조한 일본인 길전종평(吉田宗平)의 성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다.
- 냇시뿌리 : 응구지와 표주박 사이에 북쪽으로 내민 산줄기. 냇숫바늘처럼 꼬부라져 있다.
- 당피산 : 고잠 마을과 고잠 저수지 사이에 있는 산. 고잠 저수지 서쪽에 뻗은 산 능선까지 통칭한다. 높이 33.5m이다. 이름만 당피산일 뿐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전한다.
- 당산 : 고잠 마을 북쪽 통미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다. 불력에 기와를 얹은 1칸의 당집이 있고 정월 초사흘에 건립하여 당제를 지낸다. 당집 안에는 ‘堂山神位’ 라고 쓴 위패를 모셨다.
- 당산재 : 원안 마을과 소릉굴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이름만 당산재일 뿐 당집도 없고, 노인들도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도랑굴 : 고잠 중심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와 주변마을을 통칭하는 말.
- 독굴 : 고잠 마을의 동쪽 부분이다. 낮은 골짜기의 위쪽에 가옥이 들어서 있다. 골짜기의 남쪽에는 저수지가 있다. 옛날 옹기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몽지 : 고잠의 북쪽 당산의 동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구분된다.
- 몽지간사지 : 몽지 마을 동쪽에 있는 간척지. 흑꼬뿌리와 뚝섬을 이어 제방을 축조하였다.
- 몽지들 : 몽지 마을의 동쪽에 있는 들. 일제시대 이전에 축조한 아주 오래된 간척지이다.
- 바라지 : 신송리의 남쪽 진죽리와의 경계지역이다. 진죽리 벚도러 마을 북쪽에 돌출한 산줄기의 끝이다. 이곳에 이어 원뚝을 축조하였다.
- 박죽개 : 고잠 저수지 동쪽에 내민 산줄기. 주걱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북고잠 : 고잠 마을을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인 고잠(남고잠)과 비교하여 부르는 이름.
- 북땡이 : 원안 마을과 진죽리 대숲말 사이에 있는 낮은 산. 높이 39.5m이다.
- 불당골 : 원안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과 그 안에 있는 마을. 원안 마을에 속한다.
- 사닥다리골 : 소룡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들. 21호 국도가 지난다.
- 새원안 : 원안 마을 서쪽, 원뚝의 동쪽 들을 일컫는 말이다. 원안 마을 바로 서쪽의 원안들과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밖으로 간척지가 또 축조되어 새로 생긴 원안이라는 의미이다.
- 서낭땡이 : 서낭땡이고개 꼭대기에 있었다. 대형 트럭으로 서너 대 분의 돌이 쌓여 있는 큰 성황당이었는데, 산의 남쪽 기슭으로 길을 돌려내면서 성황당의 돌을 이용하였다.
- 서낭땡이 : 원안 마을과 참새골 사이의 고개 위에 있었다.
- 서낭땡이고개 : 원안 마을과 고잠 · 몽지 마을 사이의 산. 즉, 안산의 허리에 있는 고개이다. 이곳은 과거 원안에서 고잠 · 몽지로 통하던 길이 있었는데, 근래 남쪽 산기슭으로 돌려내어 이용하지 않는다.
- 셋바탕이 : 21호 국도에서 원안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 골짜기. 진죽리와의 경계 지역이다.

- 셋바탕이고개 : 청용중학교 북쪽에 있는 고개. 21호 국도가 지난다.
- 소룡굴 : 신송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의 서쪽이다. 진고랑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을이 있다. 송동(松洞)이라고도 한다. 신송리의 어원이 된 마을이다.
- 소리개재 : 고잠 마을과 대숲말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는 재. 진죽리와 신송리의 경계이다.
- 술고개 : 통미 마을 간사지에서 고잠 마을 도랑굴로 넘어오는 고개.
- 송동(松洞) : 소룡굴의 한자 표기.
- 수명통 : 원뚝에 있는 수문.
- 신리(新里) : 원안의 옛 이름(1915년 지형도).
- 신송1리 : 1반 소룡굴, 2반 간사지(참새골), 3반 음산말, 4반 옹그지.
- 신송2리 : 1반 통미, 2반 몽지,
- 신송간사지 : 죽림리와 신송리 사이에 있는 간척지.
- 아랫말 : 고잠 마을의 중앙부. 마을 회관이 있다. 아랫말과 윗말 사이이다.
- 아랫말틀안논 : 고잠 마을 앞에 있는 일제 시대 이전에 축조한 간척지.
- 안산 : 몽지 마을 앞. 즉, 동쪽에 있는 산. 성낭댕이가 있었다.
- 양지뜸 : 몽지 마을의 북쪽 부분.
- 옹그지 : 옹구지의 다른 이름.
- 원뚝 : 고잠 저수지 남쪽에 있는 옛 제방. 박죽개와 바라지에 이어 축조하였다. 일제시대 이전에 축조된 제방이다. 대숲말에서 고잠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 원뚝 : 통미 마을 서쪽 간척지의 제방. 명패뿌리와 통미뿌리를 이어 1970년대에 축조하였다.
- 원안(元安) : 신송리의 중심 마을이다. 가옥이 밀집되어 있다. 과거에는 신리(新里)로 불린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 이전 원뚝을 막은 후 인구가 급증된 마을인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신송리 2구 (元安, 高岑) 중 하나.
- 원안들 : 원안 마을 서쪽에 있는 들이다. 간척지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논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원안염전 : 옹구지 마을 북쪽에 있는 염전. 몽지간사지와 연결되어 있다.
- 윗말 : 고잠 마을 윗 부분. 낮은 능선 주변에 있다.
- 음산말 : 원안 마을 남동쪽 부분. 상대적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음지뜸 : 몽지 마을의 남쪽 부분.
- 옹구지 : 원안 마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 원안 마을과 원안 염전 사이에

있다. 천수만 쪽으로 열려 있는 골짜기이다.

- 응구지들 : 몽지간사지와 원안 염전 사이에 있는 섬.
- 적바위 : 통미 마을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 적배 : 통미 마을 북쪽 해안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통미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적바위에서 온 이름이다.
- 점너머 : 소룡굴의 서쪽 부분. 소룡굴의 동쪽 부분에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중리(中里) : 고잠, 몽지, 통미를 통칭하는 옛 이름(大正 4년 지형도)
- 진고랑 : 소룡굴 마을 앞에 남북으로 뻗은 깊은 골짜기.
- 참새골 : 원안 마을 동쪽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
- 통미 : 신송리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현재 10가구가 거주한다.
- 통미뿌리 : 통미 마을의 서북쪽 끝. 바닷가이다.
- 틀안 : 통미 마을 서쪽에 있는 옛 간척지.
- 표주박 : 응구지 마을의 동쪽 산 기슭. 뉘시뿌리의 남동쪽 산기슭이다.
- 흑꼬뿌리 : 몽지 마을 북쪽에 내민 산줄기. 당산에서 동쪽으로 향한 산줄기이다. 이곳에 이어 몽지간사지를 축조하였다. 옛날 이곳에서 묘지에 쓰던 백회를 구웠다고 한다.



몽지(1996)



통미(1996)

3. 야현리(野峴里)

본래 보령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통곡리(桶谷里), 내곡리(內谷里)와 석반리(石礮里), 남현리(南峴里), 비야평리(飛野坪里)의 각 일부와 청소면(靑所面)의 어전리(於田里) 일부를 병합하여 비야평(飛野坪)과 남현(南峴)의 이름을 따서 야현리라 하여 청소면에 편입하였다.

- 가로고개 : 야현리에서 장곡리 방축골 꼭대기를 지나 주포면 마강리에 이르는 고개. 주변이 공동묘지이다.
- 갈우현(渴牛峴) : 가로고개의 한자 표기.
- 고용바위 : 따불고랑 동쪽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고양이바위라는 뜻이라고 한다.
- 고인돌 : 돌뺨 마을 청룡뿌리 앞 바위백이에 있다.
- 과부산 : 새남방재 마을 서남쪽 가로고개 서쪽에 있는 산. 경찰지서에서 밤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공동묘지가 있다.
- 구남방재 : 남방재 마을의 동쪽 부분. 새남방재와 통골 사이에 있다.
- 구질 : 가로고개에서 통골, 비야들로 통하는 길. 21호 국도가 뚫리기 전에는 이 길이 큰 길이었다. 현재는 구질이라고 불린다.
- 굴뚝샘 : 서드물에 있는 샘. 철도 건널목의 서쪽에 있다.
- 날근터 : 새남방재 마을 남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사기공장이 들어서 있다.
- 남방재 : 야현리의 서쪽 마을. 서낭당이 고개를 중심으로 서쪽의 새남방재와 동쪽의 구남방재로 구분된다.
- 남방재골 : 새남방재 마을 앞에 있는 들. 국도 21호선이 지난다.
- 남현(南峴) : 남방재 마을의 한자 표기.
- 남현리(南峴里) : 남방재 마을의 한자 표기.
- 뇌곡(耑谷) : 따불의 한자 표기.
- 당산 : 새남방재 마을 서쪽 장곡리와 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새남방재에서 위하던 당산으로 생각되나 노인들도 제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당집, 신수, 아무것도 없다.
- 돌보 : 돌뺨 마을 동쪽에 있는 보. 태춘앞보와 진죽교 사이에 있다.
- 돌뺨 : 야현리의 서북쪽 끝 마을.
- 돌뺨뿌리 : 돌뺨 마을과 장곡리 구워들 사이에 뽕족하게 내민 산줄기.
- 동산 : 통골과 구남방재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북쪽으로 향해있다.
- 둥병배미 : 새남방재 앞에 있는 논.
- 둥병배미샘 : 새남방재 마을 앞 둥병배미에 있는 샘.
- 뒷고랑 : 따불 마을 북쪽 골짜기. 임진왜란 때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동생 이여매(李如梅)의 묘가 있다고 전하나 후손들에 의하면 이여매의 손자 이성룡(李成龍)의 묘라고 한다.
- 뒷메고랑 : 통골저수지 동쪽, 뒷메산에 있는 골짜기. 중간말의 동쪽이다.

- 뒷메산 : 통골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정전리와와 경계가 된다.
- 등너머 : 구남방재의 동쪽 능선너머에 있는 마을. 통골의 일부분이다. 남방재의 능선너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따불 : 통골의 남동쪽 따불고랑에 있는 마을.
- 따불고랑 : 통골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퇴곡리(未谷里) : 따불. <1911, 朝鮮地誌資料>
- 메도리 : 야현리와 정전리의 경계가 되는 진동의 북쪽 끝 부분.
- 모탱이보 : 야현리의 동쪽 끝에 있는 보. 새미보 동쪽에 있었다. 느락골로 들어오는 다리의 바로 남쪽이다.
- 바위백이 : 돌뻥 마을 청룡뿌리 동쪽에 있는 바위(고인돌) 주변을 이르는 말.
- 방아다리 : 통골저수지와 구질 사이에 있는 들.
- 배나무골 : 따불고랑 안에 있는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번덕지 : 통골의 남쪽 구질의 십자거리이다. 오수현(吳壽顯)의 호자문이 있다.
- 불당굴 : 새남방재 마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비아평리(飛蛾坪里) : 비야들. <1911, 朝鮮地誌資料>
- 비야(飛野) : 비야들의 한자 표기.
- 비야들 : 통골과 진죽천 사이에 있는 마을. 밭으로 이루어진 들 가운데에 있던 마을인데 요즈음 주변이 모두 논으로 개량되었다. 마을 주변의 들을 말하기도 한다.
- 비야평(飛野坪) : 비야들의 한자 표기.
- 비야평리(飛野坪里) : 비야들의 한자 표기.
- 비얏골 : 비야들의 다른 이름.
- 상나무꼬트머리 : 새남방재 북쪽으로 향한 산의 끝. 철로변까지 돌출하였다. 과거 향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새남방재 : 남방재 마을의 서쪽, 21호 국도의 동쪽이다.
- 새남방재정자나무 : 새남방재 마을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7아름 4뺨이라고 한다.
- 새뜸 : 구남방재 남쪽에 있는 마을.
- 새보 : 비야들에서 마참으로 통하는 다리 바로 위에 있는 보. 중보와 새미보 사이에 있다. 비야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 서낭댕이 : 새남방재와 구남방재 사이의 서낭댕이고개 꼭대기에 있었다.
- 서낭댕이고개 : 새남방재와 구남방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서낭댕이골 : 돌뻥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파리재고개 서낭댕이 동쪽 골짜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서드물 : 돌뺨 마을과 새남방재 마을 사이에 있는 들. 냉동공장의 남쪽이다.
- 석반(石磓) : 돌뺨의 한자 표기.
- 석반리(石磓里) : 돌뺨. <1911, 朝鮮地誌資料>
- 셋메골 : 따불고랑의 동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 수박골 : 통골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주포면 마강리와 경계한다.
- 수정골 : 애장번덕지 남쪽의 낮은 골짜기. 질편이의 동쪽이다.
- 아래뜸 : 비야들 마을의 서쪽 부분.
- 안산 : 통골저수지 남쪽에 있는 산. 수박골의 동쪽이다. 높이 123.9m이다. 주포면 마강리와의 경계이다.
- 안통골 : 왕대골의 남쪽 끝 부분이다. 구질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애장번덕지 : 통골 번덕지와 비야들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 옛날 애장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정미소가 있다.
- 야현1리 : 1반 피야들, 2반 피야들, 3반 돌뺨, 4반 남방재.
- 야현2리 : 1반 새뜸, 2반 따불, 3반 남방재.
- 영오출 : 구남방재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영오출길 : 구질에서 통골을 통하여 냉동공장 옆으로 통하는 길.
- 오수현효자문(吳壽顯孝子門) : 통골 번덕지에 있다. 해주 오 씨로 효심이 지극하였다. 엄동설한인데도 어머니가 병중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자, 수박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 신령이 감동하여 있는 곳을 알려 주어 어머니의 병환을 치료했다고 전한다.
- 왕대골 : 구남방재 마을 남쪽의 골짜기. 모두 논으로 이용된다.
- 용어출(龍魚出) : 용오출의 한자 표기.
- 윗고개 : 따불고랑에서 주포면 마강리로 넘어가는 고개. 수박골의 동쪽 골짜기에 있다.
- 윗고개골 : 따불고랑에서 남쪽으로 뺨은 골짜기. 수박골의 동쪽에 있다.
- 윗말 : 비야들 마을의 동쪽 부분.
- 이성룡묘(李成龍墓) : 임진왜란 때 원병으로 왔던 농서이씨(瀧西李氏) 이어송(李如松) 장군의 아우 이어매(李如梅)의 손자 이성룡(李成龍)의 묘. 명나라와 후금의 심하(深河) 전투에서 피신한 이성룡을 당시 병조판서 장만(張晩)이 충청수사 백선남에게 부탁하여 이곳 청소에서 살게 되면서, 진주강씨(晉州姜氏) 강수남(姜壽男)의 딸을 얻어 살았다고 한다. 따불 뒷고랑에 있다.

- 장자마루보 : 진죽 철교 바로 위에 있는 보. 진죽리에 물을 대었다.
- 정야리(井野里) : 비야들의 다른 이름.
- 중간말 : 따불고랑의 입구. 즉, 통골저수지 제방 동북쪽에 있는 마을.
- 중보 : 장자마루보와 새보 사이에 있던 보. 진죽리에 물을 대었다.
- 진등 : 따불고랑의 남쪽에 있는 산능선. 주포면 마강리와 경계한다.
- 진등 : 야현리와 정진리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를 통칭하는 말.
- 질편이 : 통골 번덕지와 애장번덕지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
- 청룡뿌리 : 돌뻥 마을 남쪽에 내민 산줄기.
- 통곡리(桶谷里) : 통골의 한자 표기.
- 통골 : 남방재와 비야들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통골저수지 : 통골의 남쪽, 따불고랑 밑에 있는 저수지.
- 통남(桶南) : 1960년대 야현리 2구(平野, 桶南) 중 1구.
- 평야(平野) : 1960년대 야현리 2구(平野, 桶南) 중 1구.
- 피아들 : 비야들의 다른 이름. 주민들은 피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따불(1996)



새남방재(1996)

4. 장곡리(長谷里)

본래 보령군 장척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후동(後洞), 장좌동(長佐洞), 망선동(望仙洞), 조곡(鳥谷)을 합하여 장좌동에서 장을, 조곡에서 곡을 따 장곡리라 하여 청소면에 편입하였다.

- 가로고개 : 방죽골의 위쪽 공동묘지 옆에 있는 고개이다. 방죽골을 중심으로 두 고개가 있었으나 고개를 낮추어 하나처럼 되었다. 새남방재에 사는 송가라는 총각과 주포

마강리에 사는 처녀가 사랑을 했는데, 가로고개에 막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보지는 못해서 한탄했다는 전설이 있다.

- 가마굴 : 간사지 마을 안에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간사지 마을 앞에 염전이 있었고, 이곳에 소금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간사지 : 장곡리 북쪽에 있는 간척지를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금오농장, 정정(正井)이간사지, 운현공간사지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갯논들 : 장자울 서쪽 끝에 있는 들. 옛날 간척사업 이전에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인다.
- 공동묘지 : 방죽골 꼭대기 즉, 가로고개에 위치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 공동묘지가 있어 예부터 많은 전설이 전해 오는 곳이다.
- 공판재 : 새울 마을 서쪽에 있는 낮은 산 능선. 평평하여 옛날에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라고 전한다.
- 과부산 : 가로고개 서쪽에 있는 뽕쪽한 산이다. 공동묘지가 있다. 경찰지서에서 조성한 밤나무 과수원이 있다. 높이 61.9m이다.
- 구억말 : 덕굴 마을의 남서쪽 부분을 일컫는 말.
- 구웁들 : 태춘고개 마을 남동쪽에 있는 모퉁이 들. 옛날 사과(司果) 벼슬을 지낸 부자가 살았는데 동학혁명 때 동학군에게 재물을 빼앗겼다고 전한다.
- 궁개굴 : 덕굴의 남서쪽 골짜기. 덕굴과 장자울 사이 궁개굴로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궁개굴 : 장자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 운현공간사지와 통한다.
- 궁개굴고개 : 장자울 양지뚝에서 궁개굴로 넘어가는 고개.
- 금오농장(金烏農場) : 장곡리와 진죽리에 걸쳐 막은 간척지이다. 주변 간척지 중 가장 나중에 막았다. 1915년에 측도한 지형도에 제방만 표시되어 있고, 논은 정리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1932년에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흥산저포조합(사장 김종업)이 막았다고 전하는데, 비석에 의하면 충남흥산주식회사(忠南興産株式會社)에서 막았다.
- 깔딱바위 : 간사지 마을과 덕굴 마을 사이의 매섭 북쪽 끝에 있는 바위.
- 당산 : 새남방재 앞에 있는 산. 새남방재의 당산이다.
- 당산모태이 : 장자울 중당이 있던 산의 서쪽 끝 부분.
- 당샘 : 자살미고랑 남쪽에 있는 샘이다. 옛날 당제 지낼때 제주가 목욕하고, 제사에 쓰던 샘이다.

- 대동샘 : 새울 마을 앞에 있는 샘이다.
- 대동샘 : 장자울 마을 가운데에 있는 샘.
- 도치굴 : 턱굴 마을 서낭당이굴 동쪽. 즉, 돌뺨 쪽으로 뺨은 골짜기.
- 돌뺨뿌리 : 구웁들과 돌뺨 마을 사이에 내민 산줄기.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 장곡리와 야현리의 경계이다.
- 뒷굴 : 새울 마을 앞. 즉,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똥섬 : 장곡리 북쪽 금오농장 간척지 안에 있던 작은 섬. 목섬의 북쪽에 있었다. 집도 2가구 있었으나 1994년에 없어졌다. 똥무더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시 : 장자울 동쪽 마시고개 너머의 평평한 지역을 통칭하는 말.
- 마시고개 : 장자울에서 마시골로 넘어가는 고개. 청소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이다.
- 마시골 : 장곡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철도가 통한다. 주민의 거주는 없고 논과 밭이 많다.
- 막바지 : 공개굴의 동쪽 부분. 골짜기의 끝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 막바지꼭대기 : 공개굴의 동쪽 산봉우리. 야현리와의 경계이다. 높이 65.2m이다.
- 망선동(望仙洞) : 장곡리의 남쪽 끝. 주포면과의 경계에 있는 마을. 고속도로가 지난다.
- 망선동고개 : 망선동에서 청소장으로 통하는 고개.
- 매섬 : 간사지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다. 섬은 아니지만 간척사업 이전에 바다로 돌출한 지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매섬고개 : 턱굴 구역말에서 서쪽의 매섬으로 오르는 고개.
- 모새들보 : 구웁들 북쪽에 있던 보. 집수정의 밑에 있었다. 전마들에 물을 대었다.
- 목섬 : 간사지 마을에서 북쪽으로 내민 산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좁은 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에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분명 육지인데도 섬이라고 불렀다.
- 무네미고랑 : 장곡리 서쪽, 웅개저수지 남쪽의 골짜기. 돌고개 마을에서 물이 넘어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바위독집 : 지네뿌리 앞에 있던 집.
- 방죽골 : 마시골에서 동남쪽으로 뺨은 골짜기. 골짜기의 상부는 가로고개에 위치한다.
- 범의턱거리 : 새울 마을에서 자살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사기점 : 운현공간사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창무이의 남동쪽에 있다. 옛날 배로 접토를 실어다가 사기그릇을 구웠다고 전한다.
- 산수굴고개 : 망선동 마을에서 오천면 산수굴로 넘어가는 고개.

- 상당 : 새울 마을 서쪽의 산 봉우리. 공판재의 북쪽이다. 1950년대까지 상당(上堂)으로 위하던 곳이다. 별도의 건물은 없었고,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었다. 정월 초에 택일하여 제를 지냈다. 제는 제관이 밥만 가져가 지내고 이어서 중당에서 여럿이 모여 지냈다고 한다.
- 상당 : 장자울 마을의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1950년대까지 제를 지냈다. 정월 초에 택일하고, 당주를 뽑고, 걸립하여 제물을 장만하였다. 밤 10시쯤 상당에서부터 제가 시작되었다. 상당에서는 마을 대동 소지를 올렸다. 신수는 없었다고 한다. 높이 43.4m이다.
- 새암고개 : 퉁골 마을 중심에서 매섬을 넘어 운현공간사지로 통하는 고개.
- 새울 : 청소면의 서남쪽 끝 마을이다. 장자울과 함께 장곡리의 중심 마을이다. 경주 최 씨가 세거하였다.
- 서낭댕이 : 장자울 마을에서 과리재 마을로 연결되는 고개 마루에 있는 성황당. 퉁골의 남쪽에 있다. 이곳은 옛날 오천의 수사(水使)가 다니던 큰 길이었다고 전한다. 신수로 위해지던 나무는 잡목이었고 아주 큰 성황당이었다고 전한다.
- 서들물고랑 : 소들물고랑의 다른 이름.
- 설무렁지 : 새울 마을에 있는 산줄기의 동쪽 끝. 중당의 동쪽 끝 부분이다.
- 소들물 : 새울 마을과 망선동 마을 사이에 있는 와우형국의 북쪽 끝.
- 소들물고랑 : 망선동 북쪽의 골짜기.
- 술서낭댕이 : 망선동 마을 남쪽에 있는 성황당. 주포면 마강리와의 경계에 있다. 돌무더기는 없어지고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만 남아 정월 열나흘에 서낭제를 지냈었으나 고속도로 공사로 없어졌다.
- 수명통 : 금오농장 왼쪽의 배수로이다. 진죽리 비야목 마을 옆에 있다.
- 신동(新洞) : 간사지 마을과 퉁골을 통칭하는 이름. 1960년대 장곡 2구(長谷, 新洞) 중 1구.
- 아래뜸 : 새울 마을의 동쪽 부분.
- 양지뜸 : 장자울의 북쪽 부분.
- 어풍쟁이 : 퉁골 마을 동북쪽 산줄기의 끝.
- 어풍정(魚豐亭) : 어풍쟁이의 한자식 표기. 고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와우형국 : 새울 마을과 망선동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7.0m이다. 풍수지리상 누운 소의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와재고개 : 장자울 읍지뜸에서 망선동으로 통하는 고개.

- 운현공간사지 : 장곡리에 있는 간척지 중 가장 오래된 간척지이다. 조선 말기 운현궁에서 막았다고 전하는 간척지이다. 옛 갯고랑을 따라 수렁이 많았으나 1992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모두 없어졌다.
- 웅개저수지 : 장곡리 서쪽 끝에 있는 저수지. 무네미고랑의 북쪽에 있다. 오천면 교성리 웅개 마을의 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원논 : 장자울 서북쪽, 당산모퉁이 너머에 있는 논. 간척지가 아닌 원래의 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원논고개 : 장자울 양지뜸에서 원논으로 넘어가는 고개.
- 원뚝 : 간사지 마을 앞 간척지의 둑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정정룡태(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 원뚝 : 장곡리 북쪽 끝, 금오농장 간척지의 둑이다.
- 원뚝 : 조선 말기에 막은 운현궁 간척지의 둑. 간사지 마을과 장자울, 새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다.
- 위뜸 : 새울 마을의 서쪽 부분. 함박굴의 밑이다.
- 음지뜸 : 망선동 마을의 서쪽 부분.
- 음지뜸 : 장자울의 남쪽 부분.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이라리쪽뿌리 : 간사지 마을 서쪽에 내민 산줄기이다. 이곳과 목섬을 이어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오천면 교성리에 속한다.
- 이창무이 : 운현궁 간사지 서쪽에 내민 돌출부이다. 이곳에 이어 운현궁간사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자살미 : 새울 마을의 동쪽, 낮은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 자살미고랑의 남쪽에 있다.
- 자살미골 : 자살미 마을의 북쪽 골짜기이다. 웅개저수지 옆으로 통한다.
- 장곡1리 : 1반 장자울 음지뜸, 2반 장자울 양지뜸, 3반 망선동, 4반 새울.
- 장곡2리 : 1반 구웁들, 2반 퉁골, 3반 간사지.
- 장승백이 : 망선동 동쪽에 있는 언덕이다. 노인들도 장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장자울 : 장곡리 남쪽에 있는 마을. 장곡리의 중심 마을이다.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구분된다.
- 장좌동(長佐洞) : 장자울의 한자식 표기.
- 장좌동(長佐洞, 장지울) : 청소면 장곡리 ‘장자울’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장척동(長尺洞) : 장자울의 한자식 표기.

- 정정이간사지 : 간사지 마을 앞(서쪽)에 있는 간척지로 일제시대 정정룡태(正井瀧太)가 막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정주백이 : 오천면 갈현리 돌고개 마을과 장곡리의 경계지역이다. 주포에서 오천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이곳은 옛날 토정 선생이 바래기재에서부터 성주 8모란을 찾아 내려오다가 산줄기를 잃은 곳인데, 신령이 소를 몰고 나타나 건너가라는 암시를 주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 조곡(鳥谷) : 새울의 한자식 표기.
- 주막거리 : 새울 마을 아래뜸의 동쪽 끝 부분이다. 근래까지 주막이 있었다.
- 중당 : 새울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 1950년대까지 정월 초에 택일하여 제를 지냈다. 당집은 없었으며 산의 꼭대기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서 지냈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보아 뽑았으며, 걸립하여 제물을 장만하였다. 제물은 일반 제사와 같이 주과포, 떡 등을 사용하였다.
- 중당 : 장자울 북쪽 산 정상이다. 1950년대까지 제를 지냈다. 상당에 제를 지낸 후 지냈는데, 이곳에서는 개인 소지를 올렸다고 한다. 신수로 위하던 나무는 없었고, 임시로 막을 짓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높이 36.2m이다.
- 지네뿌리 : 덕굴 마을 서북쪽 끝에 내민 산줄기. 지네가 송암을 건너보는데 송암의 두꺼비바위 때문에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
- 집수정 : 옛 태춘앞보 북쪽에 있는 집수정이다. 가뭄이 심하면 양수한다.
- 집앞이 : 장자울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들.
- 취보 : 덕굴 마을 앞에 있는 보. 진죽천의 최하류(最下流)에 있는 보이다. 금오농장에 물을 대었다.
- 태춘고개 : 태춘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현재 포장도로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태춘고개 : 덕굴 마을에서 청소면 소재지로 통하는 고개. 포장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덕굴 마을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현재는 거의 폐쇄되어 있다. 이곳은 서낭댕이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서낭제를 지내던 곳이다.
- 태춘앞들 : 덕굴 동쪽 태춘 마을 앞 들. 과거에는 태춘앞보에서 물을 대었으나 현재는 돌보에서 물을 댈다. 가뭄이 심하면 옛 태춘앞보 밑에 있는 집수정에서 양수한다. 1989년쯤 경지정리를 하였다.
- 터진목 : 간사지 마을 목섬과 매섬이 연결되는 낮은 목이다. 이곳을 통하여 간사지 마을 주민들이 외부로 출입한다.
- 덕굴 : 장곡리의 동북쪽 마을이다. 장자울, 새울과 함께 장곡리의 중심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부터 있던 오랜 마을이다.

- 턱굴앞 : 턱굴 마을 북쪽에 있는 들. 아주 오래된 간척지이다.
- 파리재고개 : 장자울 마을에서 파리재 마을로 연결되는 고개. 턱굴의 남쪽에 있다. 이곳은 옛날 오천의 수사(水使)가 다니던 큰 길이었다고 전한다.
- 후동(後洞, 뒤골) : 청소면 장곡리 후동(뒷골) 마을. 요즈음은 턱굴이라고 많이 부름 <1911, 朝鮮地誌資料>



망선동 솔서낭(1996)



새울(1996)

5. 재정리(才井里)

본래 보령군 청소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풍정리(楓井里), 재궁동(才宮洞), 죽림리(竹林里) 일부를 병합하여 재궁(才宮)과 풍정(楓井)의 이름을 따서 재정리라 하여 청소면에 편입하였다.

- 가래울고개 : 늪적굴 남쪽 황새봉 동쪽에 있는 고개. 정전리 가래울과 통하는 고개이다.
- 각시모리 : 새절굴 밑에서 남쪽으로 향한 좁은 골짜기. 철로가 지난다.
- 간사지들 : 시드물 서쪽 끝에 있는 간척지. 신송리, 죽림리의 경계이다. 일제시대 정정룡태(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 개눈골 : 시드물 서쪽에 있는 골짜기. 불무골과 난구지골 사이에 있다. 21호 국도가 지난다.
- 개눈골고개 : 시드물 서쪽에 있는 고개. 21호 국도가 지난다. 죽림리와의 경계이다. 죽림리에서는 안골고개라고 부른다.
- 전쟁이고개 : 호리울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정전리 전쟁이와 통한다.

- 검배고개 : 호리울과 진죽리 검배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 계거름재 : 계거름재골과 정전리 윗건쟁이, 성연리 양지편으로 통하는 재.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다.
- 계러름재골 : 장구봉 서쪽에서 계거름재로 오르는 골짜기.
- 고부랑바위골 : 늑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줌방바위골과 수루치골 사이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폭포가 있다.
- 공바탕 : 냉정골 땅빠지골 남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옛날 공을 치던 곳이라고 전한다.
- 광성부원군묘(光城府院君墓) : 늑적골의 산직촌 북쪽에 있다. 광산인(光山人)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극성(金克成)의 묘이다. 김극성은 성종 5년(1474)에 출생하여 연산군 2년(1496) 사마시, 1498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였다.
벼슬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이고 중종 35년(1540)에 졸하였다.
- 광성부원군사당(光城府院君祠堂) : 늑적골의 산직촌에 있다.
- 광성부원군신도비(光城府院君神道碑) : 늑적골 산직촌에 있다.
- 광성비(光城碑) : 광성부원군 김극성신도비. <1911, 朝鮮地誌資料>
- 구로 : 시드물에서 장승백이를 통하여 막은골로 이어지는 길.
- 구역말 : 냉정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냉정골의 일부분이다.
- 구질 : 호리울에서 진죽리 검배 마을과 통하는 고개.
- 구질고개 : 배다리 서쪽에서 냉정골로 통하는 고개.
- 궁갈미재 : 늑적골 새재 마을에서 성연리 궁갈미로 넘어가는 고개.
- 김좌진장군묘 : 늑적골 새절골의 동쪽에 있다.
- 난구지골 : 시드물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 송산과 21호 국도 사이에 있다.
- 냉정(冷井) : 냉정골 마을 안에 있는 샘.
- 냉정골(冷井) : 재정리 서쪽 시드물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가운데에 냉정(冷井)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냉정골 : 냉정골 남쪽의 골짜기 들.
- 냉정리(冷井里) ; 냉정골의 한자 표기.
- 늑적골 : 재정리의 동쪽. 즉, 철도 동쪽 마을. 재경골, 새절골, 야지편, 산직촌, 새재, 음산말로 구성된 큰 마을이다.
- 능동(陵洞) : 1960년대 재정리 2구(陵洞, 楓井) 중 1구.
- 능동(陵洞) : 늑적골의 한자 표기.
- 대동샘 : 중들의 가운데에 있는 샘. 양지편 마을 주민들이 먹었고, 가물면 새절골

주민들도 이용하였다. 이곳에서 두레를 시작했다고 한다. 대동샘이라고도 한다.

- 두죽점(豆粥店, 팟죽거리주막) : 팟죽거리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들샘 : 대동샘의 다른 이름.
- 땅빠지굴 : 냉정굴 서남쪽 골짜기. 구억말의 남쪽에 있다.
- 펜솔밭 : 시드물 서쪽 마을 앞에 있던 솔밭. 산과 이어지지 않은 솔밭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밤동산 : 호리울 마을 가운데에 있는 낮은 산. 가옥을 짓느라고 없어졌다.
- 방갓도로 : 냉정굴 마을의 동쪽, 배다리들의 서쪽에 있는 들.
- 배다리 : 냉정굴과 늑적굴 사이에 있는 마을. 팟죽거리의 남쪽에 있다.
- 배다리들 : 배다리 마을 동쪽에 있는 들. 철로의 서쪽이다.
- 범터거리 : 구질고개 꼭대기를 말함.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부하챙이 : 시드물 마을 앞에 있는 들. 해방 후부터 근래까지 범씨 채종포로 이용된 기름진 들이다.
- 북두고개 : 늑적굴 마을 재경골에서 죽림리 모리울로 넘어가는 고개. 철로가 지나고 철로 옆으로 도로가 나 있다.
- 불무골 : 시드물 서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개눈골과 턱골 사이에 있다.
- 불탄골 : 늑적굴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수박재로 오르는 길이 있다.
- 산직촌 : 늑적굴 동쪽 부분. 광성부원군 김극성의 묘와 사당, 신도비가 있다. 광성부원군과 관련된 취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새재(즉은새재) : 늑적굴 새재 마을에서 성연리 새재 마을로 통하는 고개.
- 새재 : 늑적굴의 동쪽 끝 마을. 새재의 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새재고랑 : 늑적굴 새재 마을에서 새재고개(즉은새재)로 통하는 골짜기.
- 새절굴 : 늑적굴 마을의 북쪽 부분. 김좌진장군묘 앞 마을이다
- 서낭고개 : 냉정굴 구억말에서 진죽리 뱀굴로 통하는 고개에 성황당이 있다.
- 서낭댕이 : 냉정굴 구억말과 진죽리 뱀굴 사이의 서낭고개 꼭대기에 있다.
- 서낭댕이 : 늑적굴 마을 새절굴에서 산직촌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에 있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다.
- 송산 : 시드물 서쪽 끝에 있는 산. 신송리 소릉굴 갯모랭이 산과 마주한다.
- 쇠말봉 : 늑적굴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죽림리와 경계한다. 높이 265.9m이다.
- 수루치골 : 늑적굴 새재 마을 북쪽의 고개. 함박골과 고부랑고개골 사이에 있다.
- 수박재 : 늑적굴 마을에서 불탄골을 통하여 산으로 오르는 재.

- 시드물 : 재정리의 서쪽, 냉정굴 북쪽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의 동쪽에 있다.
- 안산 : 늑적굴 남쪽의 산. 정전리와 경계하는 산이다.
- 양지편 : 늑적굴의 중심 마을. 마을의 가운데에 정자나무가 있다.
- 우매들 : 함박굴의 동쪽 부분에 있는 들. 새절굴의 아래쪽에 있다.
- 음산 : 호리울의 서북쪽 끝에 있는 집과 그 주변을 말함.
- 음산말 : 늑적굴의 남쪽 부분. 상대적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골 : 늑적굴 큰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장고개 : 늑적굴 양지편 정자나무에서 통봉 쪽으로 통하는 낮은 고개. 성연리, 재정리 사람들이 광천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구봉 : 늑적굴 마을 가운데에 내민 봉우리. 봉우리 2개가 장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 시드물의 턱골과 죽림리 갓골 마을이 연결되는 고개 꼭대기에 있다. 이곳은 옛날에 큰 길이었다고 전한다.
- 장승백이골 : 함박굴의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장승백이 밑으로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재갓이 : 시드물 턱골에서 장승백이로 오르는 길.
- 재경골 : 늑적굴의 북쪽 끝에 있는 마을. 감리교회의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 재경골 : 함박굴의 동쪽 부분에 있는 들.
- 재궁골(齋宮) : 재경골의 한자 표기.
- 재궁동(才宮洞) : 재경골의 한자 표기.
- 재정1리 : 1반 청룡안, 2반 양지뜸, 3반 새재, 4반 재경굴.
- 재정2리 : 1반 시드물, 2반 냉정굴.
- 정상터 : 배다리 옛 길 옆이다. 옛날 고을 원의 가마가 쉬어가던 곳이라고 전한다.
- 정자나무 : 늑적굴 마을 새절굴의 김좌진장군묘 앞 주차장 옆에 있다.
- 정자나무 : 늑적굴 양지편 가운데에 있다. 주변에 방앗간, 마을 회관, 마을 창고가 있다.
- 정자나무 : 늑적굴의 산적촌에 있다.
- 줍방바위골 : 늑적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진밭골과 고부랑고개골 사이에 있다.
- 중들 : 늑적굴 마을 앞. 즉, 양지편과 음산말 사이에 있는 들.
- 진밭골 : 늑적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새재고랑과 줍방바위골 사이에 있다.
- 철마봉(鐵馬峰) : 쇠말봉의 한자 표기.

- 청룡안 : 배다리 마을 주변을 부르는 이름. 늑적굴 마을에서 풍수상으로 볼 때, 청룡의 안쪽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 : 늑적굴 마을 새절굴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쇠말봉으로 향한다.
- 턱골 : 시드물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장승백이로 올라가는 길(구질)이 지난다.
- 통봉 : 장구봉 서쪽 끝에 있는 집을 일컫는 이름. 과거에는 장구봉을 통봉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팔죽거리 : 배다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마을. 과거 큰 도로가 지났다고 한다.
- 폭포 : 고부랑고개골 입구에 있다.
- 풍정(楓井) : 시드물의 한자 표기.
- 풍정리(楓井里) : 시드물의 한자 표기.
- 피천말 : 배다리 마을의 다른 이름.
- 함박골 : 시드물 마을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의 입구. 이 골짜기의 상부는 새절굴, 재경굴, 장승백이골로 불린다.
- 함박굴 : 늑적굴 산직촌 북쪽의 골짜기. 광성부원군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호리울 : 재정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원래는 북쪽의 냉정굴과 통하였으나 철로의 건설로 고립된 마을이다. 요즘은 진죽리 점골까지 철로를 따라 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 호리울고개 : 호리울에서 늑적굴로 통하는 고개. 좁은 산길이다.
- 호리울골 : 호리울 마을 앞에 있는 들.
- 황새봉 : 호리울과 늑적굴 음산말 사이에 있는 산. 정전리와 경계한다. 높이 120.7m이다.
- 횃골 : 황새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광성부원군 사당(1996)



광성부원군 묘(1996)

6. 정전리(井田里)

본래 보령군 청소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평리(新坪里), 논향동(論香洞)과 건정리(乾井里), 어전리(於田里)의 각 일부와 장척면(長尺面)의 비야평리(飛野坪里) 일부를 병합하여 건정(乾井)과 어전(於田)의 이름을 따서 정전리라 하였다.

- 가래울고랑 : 능정굴과 아랫건쟁이 사이의 골짜기. 골짜기 위에 소류지가 있다.
- 갈비봉 : 안느락골과 논향굴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347.9m이다.
- 거누물 : 건쟁이의 다른 이름.
- 건쟁이 : 진죽천 남쪽의 자연 제방과 진죽천 북쪽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동쪽의 윗건쟁이와 서쪽의 아랫건쟁이로 구분된다.
- 건쟁이들 : 아랫건쟁이 마을 앞에 있는 들.
- 건정(乾井) : 건쟁이의 한자 표기.
- 건정리(乾井里) : 건쟁이의 한자 표기.
- 고라실 : 안느락골 안에 있는 좁은 골짜기 들.
- 곱둑고랑 : 능정굴과 가래울고랑 사이의 산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곱돌(활석)이 생산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공동묘지고랑 : 아랫건쟁이에서 진죽리 공동묘지로 넘어가는 골짜기.
- 광바실 : 석기실과 진죽천 사이의 들 가운데 마을. 과거에는 큰 길 옆이었다.
- 광산 : 정전리의 동북쪽 끝 마을. 성연리 턱굴의 남쪽이다. 옛날 금광이 있어서 형성된 취락이다.
- 꼬부랑소나무 : 밧느락골 마을 안 하천 옆에 있다. 도로쪽 가지가 제거되면서 성장하여 기이한 형태로 꼬부라져 있다.
- 내건너 : 논향굴 마을의 동쪽 부분. 중동말과 안산 사이에 있다.
- 논향(論香) : 논향굴의 한자 표기.
- 논향(論香) : 정전리 2구(論香, 坪田) 중 1구.
- 논향굴 : 정전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도루말, 중동말, 내건너, 샘말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 골짜기 안에 논향사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누락정 : 느락굴의 다른 이름.
- 느락골 : 정전리의 남서쪽 골짜기 마을. 밧느락골과 안느락골로 나누어진다.
- 느랏굴 : 느락골의 다른 이름.

- 능정굴 : 정전리 동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마을의 입구에 옛 운크라광산의 건물이었다.
- 능정굴고개 : 성연리 덕굴에서 능정굴로 넘어가는 고개.
- 당산 : 안느락굴과 밧느락굴 사이에 있는 산이다. 동두메의 남쪽 봉우리이다. 지명만 당산일 뿐 노인들도 당계 지낸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당집도 신수도 없다. 높이 80.6m이다.
- 대한중석광산 : 위건쟁이 금광을 최근에 부르던 이름. 대한중석의 소유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도루말 : 논향굴 마을의 입구에 있는 마을. 황새산 북쪽에 위치한다.
- 동두메 : 밧느락굴과 안느락굴 사이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높이 52.5m이다.
- 뒷내 : 아랫건쟁이 서쪽 청룡뿌리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뒷보 : 윗건쟁이 곱독고랑 남쪽에 있는 보.
- 뒷봉산 : 논향굴 마을 서쪽의 봉우리. 시역굴과 고누굴 사이에 있다. 높이 130.0m이다.
- 땡감나무들 : 중리 마을 동북쪽 하천 주변에 있는 들. 거친 모래로 된 자연 제방이라 밭으로 이용되었다.
- 멧덕피 : 논향굴 남쪽 시역굴과 장작굴 사이의 산.
- 메도리 : 야현리 비야들과 밧느락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끝.
- 밧느락정 : 밧느락굴의 다른 이름.
- 밧느락굴 : 정전리의 서남쪽 골짜기 마을이다.
- 방아다리 : 논향굴 마을 입구의 다리. 옛날 물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범바위 : 논향굴과 성연리 읍지 사이에 있는 큰당산 서쪽에 있는 바위.
- 범바위 : 안느락굴 남쪽 산능선에 있는 바위. 갈비봉의 서쪽이다.
- 부들배미 : 부들배미샘이 있는 논.
- 부들배미샘 : 밧느락굴 서쪽 산 밑에 있는 샘이다. 옛날 이여매(李如梅) 장군(임진란 때 원군으로 온 명나라 이여송의 동생)의 손자인 이성룡(李成龍) 장군이 이곳에 매사냥을 나왔다가 갈증이 나 어느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바가지 물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주었다. 장군이 기이하게 생각하여 연유를 물으니, 갈증이 날 때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 버드잎을 붙여 여유를 갖고 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장군은 고마운 나머지 보령 현감을 통해 청을 넣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 북당굴 : 밧느락굴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쪽으로 향해 있는 두 골짜기 중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재 : 논향굴에서 진등을 통하여 청라면 옥계리 시궁굴로 넘어가는 재.
- 산재샘 : 산재(논향굴과 청라면 시궁굴 사이의 고개) 밑에 있는 샘. 수원이 좋아 마을의 상수도로 이용된다.
- 살구장보 : 논향굴 마을 앞에 있던 보. 중보의 북쪽에 있었다.
- 삼구굴 : 밧느락굴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쪽으로 향한 두 골짜기 중 동쪽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서 삼(麻)을 익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상보 : 새보와 뒷보 사이에 있는 보. 아랫건쟁이 앞의 건쟁이들에 물을 대었다.
- 새보 : 아랫건쟁이 정주밑들 남쪽에 있는 보.
- 새터 : 석기실의 동쪽 끝. 성연리 읍지와 의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
- 샘말 : 논향굴 마을의 남쪽 부분. 윗말이라고도 한다.
- 서낭당이 : 논향굴 마을 샘말과 중등말 사이에 있었다.
- 서낭당이 : 아랫건쟁이 호례울고랑과 재정리 음산말 사이의 서낭당이고개 꼭대기에 있다.
- 서낭당이고개 : 아랫건쟁이 호례울고랑에서 재정리 음산말로 넘어가는 고개.
- 석면광산 : 안느락굴의 동북쪽 산줄기 끝에 있다. 일제시대 조선석면에서 석면을 캐어 웅덩이가 파여져 있다. 이곳에서는 석면 이외에 운모, 활석도 생산하였으며, 근래 장항의 풍농비료 공장에서 사문암을 채굴하여 용성인비 비료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채굴하지 않는다.
- 세거리 : 밧느락굴 북쪽에 있는 삼거리. 이곳은 아랫건쟁이에서 비야들로 통하는 길과 성연리에서 비야들 쪽으로 통하는 큰 길이 만나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과거에 통행량이 많아 관찰사, 현감의 비가 3개 있었으나 현재 1개만 남아 있다.
- 세거리점(細巨里店) : 세거리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석기실 : 논향굴 안산의 북쪽 산기슭이다. 주변의 논을 지칭하기도 한다.
- 숯고개 : 논향굴 윗말(샘말)에서 성연리 읍지 마을로 통하는 고개.
- 설바탕 : 논향굴과 청라 옥계리 시궁굴 사이에 있는 산재의 다른 이름. 옛날 청라 쪽에서 나무를 해오다가 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설바탕 : 밧느락굴의 삼구굴 남쪽에 있다.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쉬어가던 곳이다. 좋은 우물이 있어 물을 먹고 쉬었다고 한다.
- 시역굴 : 논향굴 안쪽의 남서쪽 골짜기. 안느락굴로 통하는 깊은 골짜기이다.
- 신대(新垔) : 새터의 한자 표기.

- 신평(新坪) : 새터의 한자 표기.
- 신평리(新坪里) : 새터의 한자 표기.
- 아래뜸 : 아랫건쟁이의 다른 이름.
- 아랫건쟁이 : 중리 마을 북쪽 내건너에 있는 마을. 건쟁이의 서쪽 부분이다.
- 안누락정 : 안느락골의 다른 이름.
- 안느락골 : 밧느락골과 논향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
- 안번덕지 : 논향굴 남쪽, 갈비봉 북쪽에 있는 평평한 골짜기.
- 안산 : 논향굴 마을 동쪽에 있는 산. 내 건너의 뒷산이다. 높이 112.9m이다.
- 양지리광산 : 윗건쟁이의 금광을 일제시대에 부르던 이름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형도에 이곳 주변이 양지리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양지리는 성연리에 있다.
- 어전(於田) : 느랏골의 한자 표기.
- 어전리(於田里) : 느랏골의 한자 표기.
- 운크라광산 : 윗건쟁이 금광을 해방 후에 부르던 이름. 현재도 운크라광산으로 통한다.
- 원들 : 밧느락골 입구의 서쪽에 있는 들.
- 위뜸 : 윗건쟁이의 다른 이름.
- 윗건쟁이 : 건쟁이 마을의 동쪽 부분. 하천 남쪽의 광바실 등 하천주변 취락과 하천 북쪽의 능정굴, 광산을 통칭한다.
- 윗건쟁이들 : 논향굴 마을 앞 하천 남쪽에 있는 들.
- 윗말 : 논향굴 마을의 남쪽 부분. 샘말이라고도 한다.
- 장작굴 : 논향굴 남쪽 산 밑의 환경사지. 논향사라고 불리던 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 절터 : 논향굴 남쪽 옛날 논향사가 있었다는 자리. 현재도 기왓장이 출토된다고 한다.
- 정자나무 : 중리 마을의 가운데에 있다. 정자나무 앞에는 장승이 서 있었고 서낭제를 지냈는데, 장승백이 또는 서낭댕이라고 불리지는 않았고, 정자나무라고만 불렀다고 한다.
- 정전1리 : 1반 윗건정, 2반 아랫건정.
- 정전2리 : 1반 밖느락굴, 2반 안느락굴, 3반 중리, 4반 논향굴.
- 정주밧들 : 가래울고랑과 호레울고랑 남쪽 도로변에 있는 들.
- 중동말 : 논향굴 마을의 중심 마을. 고누굴의 아래에 있다.
- 중리 : 안느랏골 마을 북쪽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다. 주변은 모래로 퇴적된 자연 제방에 해당되어 주변보다 약간 높고 물빠짐이 좋아 밭으로 이용되다가 근래 논으로

개간되었다.

- 중보 : 논향굴 마을 앞에 있는 보. 논향굴과 중리 사이의 중보들에 물을 대었다.
- 진등 : 논향굴에서 청라 옥계리 시궁굴로 통하는 산재로 오르는 산능선. 좁고 긴 능선이다.
- 질마재고랑 : 논향굴에서 성연리 음지 마을 남쪽 산허리를 통하여, 청라면 옥계리 질마재로 넘어가는 고개가 지나는 골짜기.
- 찬샘 : 밧느락골 마을 입구에 있는 샘. 물이 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뿌리 : 아랫건쟁이 서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 큰골 : 밧느락골 마을에서 서쪽(야현리 쪽)으로 난 골짜기.
- 큰당산 : 논향굴과 성연리 음지 사이에 있는 산. 음지 마을에서 위하던 당산이다.
- 평전(坪田) : 정전리 2구 (論香, 坪田) 중 1구.
- 학교집 : 세거리 바로 남쪽에 있는 집. 청소초등학교가 생기기 전, 이곳에는 안식교 재단에서 세운 사립학교가 있었다. 지금도 학교집이라고 부른다.
- 호레울고랑 : 아랫건쟁이에서 재정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황새산 : 논향굴 마을 서쪽의 산봉우리. 고누굴과 도루말 사이에 있다.



밧느락골 꼬부랑소나무(1996)



세거리 현감 남태량 비(1996)

7. 죽림리(竹林里)

본래 보령군 청소면 지역이다. 대숲굴 또는 죽림(竹林)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의식리(依食里), 도원리(桃源里), 홍도원리(紅桃源里), 마동(麻洞), 석포동(石浦洞)을 병합하여 죽림리라 하였다.

- 감나무골 : 돌개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군계의 바로 남쪽에 있다.
- 잣골 : 막은골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읍지뜸의 동남쪽 부분이다.
- 개양지 : 모리울 서쪽, 두 하천이 만나는 곳.
- 개양지들 : 막은골 중뜸 동남쪽에 있는 들.
- 공관 : 모리울 원죽저수지 동쪽에 있는 평평한 곳. 옛날 이곳에서 공을 쳤다고 전한다. 밭으로 개간되었다. 평바탕이라고도 부른다.
- 군계 : 옷배미 마을의 북쪽 끝.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독배와의 경계이다. 삼거리의 50여 m 남쪽에 있다.
- 기름산 : 홍도원 동쪽 재안이골 북쪽의 산.
- 기왓간 : 의식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는 진흙이 많아 예부터 기와를 구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근래에는 적벽돌을 생산한다.
- 길전농장저수지(吉田農場貯水地) : 의식저수지의 다른 이름. 吉田宗平농장 저수지.
- 길전(吉田)이간사지 : 죽림리 서쪽에 있는 간척지. 일제시대에 길전종평(吉田宗平)이 막았다고 전한다.
- 평바탕 : 모리울 원죽저수지 동쪽에 있는 평평한 곳. 밭으로 이용된다. 과거에는 공관으로 불렸다.
- 냇가마루 : 돌개 마을 남서쪽 샘안골과 홍도원 바깥말 사이에 있는 취락. 철로의 바로 서쪽이다.
- 뇌머리 : 누에머리의 다른 이름.
- 누에머리 : 큰막은골 서쪽, 국도 21호 동쪽에 있는 산. 누에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22.0m이다.
- 누에머리 : 큰막은골 서쪽, 국도 21호 주변에 있는 마을.
- 대동샘 : 작은막은골 앞에 있는 샘.
- 대마동(大麻洞) : 큰막은골의 한자 표기.
- 대숲골 : 모리울 원죽 저수지 동북쪽의 골짜기. 정두고개와 바망골 사이에 있다.
- 도당골 : 돌개 마을과 홍도원 마을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 도원(桃源) : 작은막은골의 옛 한자 이름.
- 도원리(桃源里) : 작은막은골의 옛 한자 이름.
- 도토매기 : 돌개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210.8m이다.
- 돌개 : 돌개의 다른 이름.
- 돌개 : 의식저수지 동쪽 철로 너머 마을이다. 광천읍의 돌개 마을과 구분하여 작은

돌개라고도 부른다. 철로 건설로 외부와 단절된 마을이다. 광천읍 용암리 큰돌개를 통하여 통행한다. 예부터 석포(石浦)로 표기하였다.

- 둔덩이터 : 돌개 마을 산제새암골과 감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뒷굴 : 홍도원 안말 남쪽, 정두고개 북쪽 부분.
- 뒷동산 : 홍도원 안말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94.5m이다.
- 똥섬 : 죽림리 서쪽 끝에 있는 섬. 정정룡태(正井瀧太)가 막은 간척지의 제방이 지난다. 죽림리에서는 바구리섬이라 하고, 신송리에서는 똥섬이라고 부른다.
- 뚝방 : 의식저수지 제방을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 마근동(麻斤洞) : 막은굴의 옛 한자 표기.
- 마동(麻洞) : 1960년대 죽림리 3구(元竹林, 衣食, 麻洞) 중 1구.
- 마동(麻洞) : 막은굴의 옛 한자 표기.
- 막은굴 : 죽림리 서쪽에 있는 중심 마을이다. 큰막은굴, 작은막은굴, 음지뜸, 중뜸, 갯굴로 구성되는데 원래의 막은굴은 큰막은굴과 작은막은굴이 있는 곳이다.
 옛날부터 막은굴로 불리고 마근동(麻斤洞)으로 표기하다가 마동(麻洞)으로 표기하였다. 마을 입구의 바다를 막아서 생긴 이름이다. 현재도 주민들은 막은굴로 부른다.
- 말무덤 : 원죽림 남서쪽에 있는 큰 무덤같은 지형.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 망굴 : 막은굴의 다른 이름. 「막은굴」이 줄여진 이름이다.
- 매봉재 : 돌개 마을 동남쪽의 산봉우리. 도토매기의 서쪽이다. 높이 168.5m이다.
- 매봉재고랑 : 돌개 마을 음산말 동쪽 골짜기.
- 메주바위 : 홍도원 동쪽 아차산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메주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모롤 : 모리울의 다른 이름.
- 모리울 : 홍도원 남쪽 재정리와 의 경계지역에 있는 골짜기 마을. 옛날에 죽림리로 표기되던 곳이다. 원래의 죽림리라는 뜻으로 원죽림(元竹林)이라 부르기도 한다.
- 모리울들 : 모리울 서쪽에 있는 들.
- 문간공묘(文簡公墓) : 홍도원 동쪽 아차산(峨嵯山) 기슭에 있는 고종 때 영의정 문간공(文簡公) 이경재(李景在)의 무덤. 최근에 옮겨갔다.
- 물탕골 : 홍도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정두고개와 절굴 사이에 있다.
- 바구리섬 : 죽림리 서쪽 끝에 있는 섬. 정정룡태(正井瀧太)가 막은 간척지의 제방이 지난다. 신송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죽림리에서는 똥섬으로 부른다.
- 바깥말 : 홍도원의 서북쪽 마을. 철로의 서쪽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 바망골 : 모리울 원죽저수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대숲골의 동쪽에 있다.
- 방아다리들 : 의식저수지 동쪽에 있는 들. 새말의 북쪽이다.
- 방제성염전 : 피섬과 배답물 사이에 있는 염전.
- 배답물 : 방제성염전과 길전(吉田宗平)이간사지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 배를 대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배답물들 : 길전(吉田宗平)이간사지 서남쪽 끝 부분. 배답물의 남쪽이다.
- 배덕 : 옷배미 마을의 북쪽 부분이다. 일제시대 매립한 지역이고, 근래에 더 넓게 제방을 축조하였다. 배를 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병풍바위 : 돌개 마을 감나무골 위 산능선에 있는 바위.
- 북두고개 : 모리울과 재정리 재경골 사이의 고개. 철로가 지난다.
- 불당골 : 모리울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빙여길 : 홍도원 안말에서 아차산으로 오르는 길.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산전말 : 돌개 마을 서북쪽 마을. 철로의 서쪽이다.
- 산제새암골 : 돌개 마을 동쪽 골짜기. 안에 산제를 지내던 샘이 있다.
- 산제샘 : 돌개 마을 동쪽의 산제새암골 안에 있다. 마을 대동에서 제를 지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샘에서 지냈다. 물이 좋아 옷배미(衣食) 마을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 산제샘 : 홍도원 동쪽 재안이골 입구에 있다. 개인적으로 지내던 산제 샘이다. 샘 옆에서 산제를 지냈다.
- 새뚝 : 줄소나무가 있던 하천의 둑을 말함. 천정천화되어 하천의 바닥이 주변 경지보다 높은 하천이었다.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 새말 : 의식저수지 동북쪽 마을.
- 새원안 : 누에머리에서 기왓간에 이르는 둑 안의 논. 일제시대 이전에 막은 간척지. 이 간척지 밖에 일제시대에 길전종평(吉田宗平)이 간척지를 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재(큰새재) : 모리울 동쪽 새재골에서, 성연리 성당 마을로 통하는 재. 재정리와 성연리 새재 사이의 작은새재와 구분하여 큰새재라 부르기도 한다.
- 새재골 : 모리울 원죽 저수지 동남쪽 골짜기. 새재(큰새재)로 통한다.
- 샘안골 : 통봉산 남쪽 골짜기에 있는 취락. 냇가마루와 통봉산 사이에 있다.
- 서낭댕이 : 돌개 마을 북쪽, 철로 서쪽에 있다. 작은돌개 마을에서 큰돌개 마을로

통하던 길가이다.

- 서낭댕이 : 큰막은굴 정문재에 있었다.
- 석바랭이 : 의식저수지 남동쪽 마을. 의식저수지와 홍도원 바깥말 사이에 있다.
- 석포(石浦) : 돌개의 한자 표기.
- 소마동(小麻洞) : 작은막은굴의 한자 표기.
- 소마동들 : 작은막은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들.
- 송산 : 막은굴 서쪽에 있는 산. 피섬의 남쪽에 있고 재정리와 경계한다.
- 쇠말봉 : 모리울 새재골 남쪽의 산봉우리. 재정리와 경계한다.
- 수구맥이 : 줄소나무의 다른 이름. 민속 신앙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수리너머재 : 돌개 감나무골 위에 있는 재.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삼분과 통한다.
- 설바탕 : 홍도원 동쪽 메주바위 있는 곳. 나무하러 다닐 때 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시정굴 : 막은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송산과 안산 사이에 있다.
- 시충골 : 의식저수지 북쪽 토분골의 다른 이름.
- 쌍효문(雙孝門) : 우씨 쌍효문. <1911, 朝鮮地誌資料>
- 아차산 : 홍도원 동쪽 광천읍과 성연리, 죽림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높이 424.4m이다.
- 안골 : 막은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음지뜸과 오얏골 사이에 있다. 21호 국도가 통한다.
- 안골고개 : 안골 남쪽에 있는 고개. 21호 국도가 통한다. 재정리에서는 개눈골고개라고 부른다.
- 안동네 : 의식저수지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옷배미의 원 마을이다. 가운데에 논이 있었고 주변에 집이 있었다. 논 가운데에는 샘이 있어 전 주민이 이용했었다고 한다.
- 안말 : 홍도원의 동쪽 마을. 원죽역의 동쪽이다.
- 앞산 : 홍도원 안말과 모리울 사이에 있는 산.
- 양지뜸 : 돌개 마을의 북쪽 부분.
- 양지뜸 : 큰막은굴의 다른 이름. 음지뜸과 비교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양촌(陽村) : 양지뜸. <1911, 朝鮮地誌資料>
- 오솔골 : 모리울 원죽저수지 남쪽 골짜기.
- 오얏골 : 막은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 안산의 동쪽에 있다.

- 오얏굴들 : 피섬과 안산 사이에 있는 들.
- 옷배미 : 죽림리의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현재 안동네라고 불리는 골짜기에만 취락이 있었고, 이 취락을 옷배미라고 불렀다. 그후 간척사업으로 21호 국도 주변에 취락이 확대되었고, 확대된 취락 모두를 옷배미로 부르게 되었다. 주민들은 현재도 옷배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예부터 한자로는 의식(衣食)으로 표기하였다. 근래에는 의식으로 많이 부른다.
- 웅암리(瓮岩里, 독바위) : 독배. <1911, 朝鮮地誌資料>
- 웅암점(瓮岩店, 독밭위주막) : 독배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웅암포(瓮岩浦, 독바위) : 독배.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뚝 : 길전(吉田宗平)이간사지의 뚝.
- 원뚝 : 새원안의 뚝. 일제시대 이전에 막은 간척지이다.
- 원죽림(元竹林) : 1960년대 죽림리 3구(元竹林, 衣食, 麻洞) 중 1구.
- 원죽림(元竹林) : 모리울의 다른 이름. 원래의 죽림리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원죽역 : 흥도원 마을 앞에 있는 기차역. 간이역이었다가 폐지되었다.
- 원죽저수지 : 모리울 동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
- 음산뚝 : 돌개 마을의 남쪽 부분.
- 음지들 : 음지뚝 마을 앞 들.
- 음지뚝 : 막은굴 남쪽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와 갯굴 사이를 부르는 이름이다.
- 음촌(陰村) : 음지뚝. <1911, 朝鮮地誌資料>
- 의식(衣食) : 1960년대 죽림리 3구(元竹林, 衣食, 麻洞) 중 1구.
- 의식(衣食) : 옷배미의 한자식 표기. 행정기관에서는 의식으로 통한다.
- 의식리(衣食里) : 옷배미의 한자 표기.
- 의식리(衣食里, 옷땀니) : 옷배미 <1911, 朝鮮地誌資料>
- 의식저수지 : 옷배미(의식) 마을 남쪽에 있는 저수지. 길전(吉田宗平)이간사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길전(吉田宗平)이저수지라고도 한다.
- 작은돌개 : 돌개 마을의 보령시 부분. 흥성군 쪽의 큰돌개와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장군샘 : 돌개 마을 매봉재고랑 안에 있는 샘.
- 장수바위 : 돌개 마을 동쪽 산능선에 있는 바위. 수저를 얹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 있는데, 장수가 수저를 얹어 놓았다고 전한다.
- 장승백이 : 갯굴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 재안이골 : 흥도원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절굴 : 홍도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 물탕골과 절굴 사이에 있다.
- 접터굴 : 홍도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재안이골과 절굴 사이에 있다.
- 정두고개 : 홍도원 안말에서 원죽 저수지로 통하는 고개.
- 정문재 : 막은굴 양지뜸에서 죽은막은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정문(旌門)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정문의 주춧돌만 남아 있다.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다.
- 정문재밭 : 정문재와 누에머리 사이에 있는 밭.
- 주막고개 : 홍도원 안말에서 도당골로 통하는 고개. 옛날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죽림(竹林) : 모리울의 옛 한자 이름.
- 죽림1리 : 1반 모리울, 2반 홍도원.
- 죽림2리 : 1반 석포랭이, 2반 돌개.
- 죽림3리 : 1반 옷배미, 2반 산 1~10, 3반 배덕.
- 죽림4리 : 1반 오얏굴, 2반 음산말, 3반 중들, 4반 양지뜸, 5반 죽은막은굴.
- 죽림리(竹林里) : 모리울의 옛 한자 이름.
- 줄소나무 : 홍도원과 모리울 사이를 흐르는 하천 주변에 있던 소나무. 이 하천은 천정천이었고 제방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심은 소나무가 제방을 따라 아름답게 서 있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모두 없어지고 3~4개만 남아 있다.
- 줍방바위 : 아차산의 서쪽, 물탕골과 대숲골 위에 있는 바위.
- 중뜸 : 막은굴 양지뜸과 갓골 사이의 들 가운데 있는 마을. 마을 주변은 모두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죽은막은굴 : 막은굴 마을의 북쪽 부분.
- 직도(稷島) : 피섬의 한자 표기.
- 진밭 : 죽은막은굴에서 기왓간 마을로 통하는 길 옆에 있는 긴 밭.
- 철도마당 : 돌개 마을 철로 서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밭으로 이용된다.
- 철마봉(鐵馬峰) : 쇠말봉의 한자식 이름.
- 체분골 : 죽은막은굴과 기왓간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진밭의 동쪽이다. 옛날에 초빈(草濱)을 했다고 전한다.
- 큰막은굴 : 막은굴 마을의 남쪽 부분.
- 토분골 : 의식저수지 북쪽 제방 안쪽에 있는 골짜기. 과거 초빈(草濱)을 했던 곳으로 생각된다.
- 통봉 : 돌개 마을 서쪽 통봉산 북쪽에 있는 마을. 철로의 서쪽이다.

- 통봉산 : 통봉 마을 남쪽에 있는 동그란 산. 높이 36.6m이다.
- 피섬 : 바구리섬의 서쪽 끝에 있는 섬. 안동 김 씨네 묘와 재실집이 있었는데 묘는 근래 이장하였다.
- 피섬염전 : 피섬 서쪽에 있는 염전.
- 학교당 : 죽림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부르던 이름. 학교가 생기기 전에 공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부터 학교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형제염전 : 피섬 염전의 다른 이름.
- 홍도리(紅桃里) : 홍도원의 옛 표기.
- 홍도원 : 죽림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는 원홍주등육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의 임소(任所)로 쓰이던 가옥이 있고 상무사 소유 토지가 많으며, 지금도 한식날에는 제를 지낸다. 안말과 바깥말로 구성된다.
- 홍도원들 : 원죽역 서쪽에 있는 들.
- 홍도원점(弘道院店) : 홍도원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홍도원참(弘道院站) : 홍도원참 <1911, 朝鮮地誌資料>
- 홍두깨말랭이 : 홍도원 동쪽 아차산의 서쪽 능선이다.



웃배미 마을(2008)



홍도원 임소 한식제(1991)



막은굴(1996)



홍도원 마을(1996)

8. 진죽리(眞竹里)

본래 보령군 장척면(長尺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상리(內上里), 송암리(松岩里), 외상리(外上里), 진목정리(眞木亭里), 마참리(馬站里), 사동(蛇洞), 죽하리(竹下里), 후동(後洞) 일부와 청소면(靑所面)의 건정리(乾井里) 일부를 병합하여 진목정(眞木亭)과 죽하(竹下)의 이름을 따서 진죽리라 하여 청소면에 편입하였다.

청소면의 중심지가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경찰지서, 우체국, 시장, 농협 등의 기관이 들어서 있다.

- 가마봉 : 마참 마을 뒷산. 높이 65.5m이다.
- 가시배 : 그물매와 짐박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길전(吉田宗平)이 간사지의 남쪽이다.
- 갯굴 : 마참 마을 앞 골짜기와 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
- 개암바위 : 짐박굴 산 끝에 있는 바위.
- 갯지 : 소리개재 마을 앞에 있던 갯골을 부르던 옛 이름.
- 검배 : 진죽리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 검배골 안에 있다.
- 검배골 : 검배 마을이 있는 골짜기. 북쪽은 모두 공동묘지이다.
- 공동묘지 : 진죽리의 동쪽 끝. 검배 마을 앞에 있다. 청소면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동묘지이다.
- 공터 : 송암 마을과 벗도러 마을 사이에 있는 평평한 산.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라고 전한다.
- 교동(校洞) : 청소초등학교 동쪽 마을. 학교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교동으로 불렸다고 한다.
- 구장터 : 파리재의 남쪽 지서 앞을 부르는 이름. 옛날 시장이 있었다. 大正 4년(1915)의 지형도에 의하면 면사무소도 이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장은 구장터에서 지서 앞으로 옮겼다가, 현재의 면사무소 뒤쪽으로 옮겼다.
- 굴집 : 송암 마을 용의부리 남쪽에 있는 집. 저수지 수로가 통과하는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굴집거리 : 평판너머 마을 동쪽 용수 터널 앞 도로.
- 그물매 : 덩금말 북쪽 능선 너머에 있는 골짜기 마을. 길전이간사지의 남쪽이다.
- 금오농장(金烏農場) : 송암 마을 남쪽에 있는 큰 간척지. 일제시대 홍산 모시조합의 김종업이 막았다고 전해지나 충남홍산주식회사의 와전으로 보인다.

- 금오농장저수지(金烏農場貯水地) : 송암 저수지의 다른 이름.
- 길전이간사지 : 진죽리 북쪽 신송리와의 사이에 있는 일제 시대 일본인 길전중평(吉田宗平)이 막은 간척지. 신송간사지, 고잠간사지라고도 부른다.
- 내상리(內上里) : 덩금말의 옛 한자 표기.
- 대숲말 : 소리개재 마을과 팽나무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덩굴말 : 덩금말의 다른 이름.
- 덩금말 : 진죽리의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옛날에는 내상리(內上里)로 표기하였다. 보령지역에 있는 수안 이 씨의 원거지라고 전한다.
- 돌보 : 장곡리 돌뻥 마을 앞에 있던 보.
- 두레봉 : 덩금말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40.8 m이다.
- 뒤통굴 : 뺨굴 동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 입구로 철로가 지난다.
- 탄섬뿌리 : 덩금말 서북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이곳에 이어 신간척지를 축조하였다.
- 딱너머 : 철딱 너머의 다른 이름.
- 뜰망뿌리 : 덩금말 서남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이곳에 이어 간척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마참(馬站) : 청소면 소재지의 동북쪽 마을. 옛날에는 이곳으로 큰 길이 지났다. 역마(驛馬)에게 먹이를 주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마참리(馬站里) : 마참의 옛 한자 표기.
- 말무덤 : 소리개재 마을 앞 장재마루들에 있는 무덤같은 지형.
- 모새들보 : 장곡리 구웁들 앞에 있는 보. 송암저수지 남쪽 모새들에 물을 대었다.
- 모탱이보 : 진죽리의 동쪽 끝에 있는 보. 새미보의 동쪽이다.
- 방축굴 : 대숲말 입구에 있는 마을. 양지뜸과 팽나무재 마을 사이에 있다.
- 방축뿌리 : 방축굴과 사동 양지뜸 사이에 남쪽으로 내민 산줄기 끝.
- 배미덩쿨 : 뺨굴 동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의 입구로 철로가 지난다.
- 배미정굴고개 : 검배 마을에서 사동 배미정굴로 통하는 고개.
- 배암머리뿌리 : 덩금말 동북쪽 두레봉에서 길전(吉田)이간사지로 향한 산줄기의 끝. 지층재의 북쪽이다.
- 뺨굴 : 교동 동쪽 마을. 청웅중학교의 동남쪽이다. 양지뜸, 교동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 벗도러 : 소리개재 마을 서쪽, 소리개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송암저수지의 북쪽이다.
- 복호마루 : 평판너머 아래뜸 북쪽에 있는 산마루. 풍수상 호랑이 엮드린 형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북댕이 : 대숲말 서북쪽에 있는 산.
- 비야목 : 진죽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 수명통이라고도 한다.
- 사동(巳洞) : 1960년대 초 진죽리 3구(坪村, 竹下, 巳洞) 중 하나.
- 사동(巳洞) : 뱀골의 한자 표기.
- 사동(蛇洞, 비암골) : 뱀골.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양매고개 : 덩금말 양지뜸에서 짐박굴로 넘어가는 고개. 지층재와 두레봉 사이에 있다.
- 삼밭골 : 덩금말 읍지뜸의 남쪽 부분.
- 새미보 : 새보와 모탱이보 사이에 있는 보. 진죽리 쪽에 물을 댈다.
- 새보 : 정전리 비야들과 샘뽕모탱이 사이에 있는 보.
- 새장터 : 과리재 마을의 북쪽 부분. 면사무소가 있다.
- 샘뽕 : 마참 마을의 언덕 너머 남쪽의 마을. 성연리로 통하는 도로의 북쪽이다.
- 샘뽕고개 : 마참 마을과 샘뽕 마을 사이의 고개.
- 샘뽕모탱이 : 마참 마을 앞 모퉁이이다. 옛날 전염병 걸린 사람을 이곳에 격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농지개량조합 출장소가 있다.
- 샘뽕산 : 마참 마을 남쪽에 있는 산. 높이 53.2m이다.
- 셋바탕이 : 청웅중학교 북쪽에서 서쪽으로 향한 골짜기. 신송리와의 경계지역이다. 21호 국도가 지난다.
- 셋바탕이고개 : 청웅중학교 북쪽 셋바탕이에 있는 고개. 신송리와의 경계지역이다.
- 소금쟁이고개 : 검배 마을에서 마참 마을로 통하는 고개. 이 고개의 북쪽에는 삼각점이 있다. 이곳에 일본인들이 쇠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주민들이 빼어버렸다고 전한다. 높이는 53.7m이다.
- 소리개재 : 대숲말 서북쪽 신송리로 통하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
- 소리개재 : 소리개재 마을에서 신송리 고잠저수지로 넘어가는 재.
- 송덕(松德) : 덩굴말의 한자 표기.
- 송암(松岩) : 진죽리의 서남쪽 송암저수지 동쪽 마을. 마을 앞에 간척지가 축조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 송암다리 : 송암 마을 용의부리 남쪽에 있는 다리.
- 송암뿌리 : 송암 마을과 평판너머 사이에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이곳에 이어 송암저수지 제방을 축조하였다.

- 송암저수지 : 진죽리 전마들에 있는 저수지. 일제시대에 간척지를 만들고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 송암포(松岩浦) : 송암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수명통 : 금오(金烏)농장 제방의 수문. 주변 마을(비야목)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에 수신(水神)이라 새긴 돌을 세우고 뚝제를 지냈다.
- 수명통 : 덩금말 서쪽 원뚝의 북쪽 끝에 있는 배수로.
- 시충골 : 덩금말 서북쪽 큰메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바다로 열려 있는 외진 골짜기로 옛날 초빈(草濱)이 있었다고 전한다.
- 신낭구재 : 덩굴말에서 큰메를 넘어 바다로 통하는 재.
- 신방골 : 덩금말 서쪽 원뚝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실패고개 : 마참 마을에서 배미덩쿨로 넘어가는 고개.
- 아래뜸 : 송암 마을의 서남쪽 부분.
- 아래뜸 : 평판너머 마을의 서쪽 부분. 비야목과 위뜸 사이이다.
- 양지뜸 : 덩금말의 북쪽 부분.
- 양지뜸 : 사동(배암굴) 마을의 서쪽 끝 마을. 청소초등학교의 남쪽이다.
- 어장간 : 평판너머 아래뜸 서쪽 산사면. 이곳에서 흙을 파 저수지 제방을 축조함.
- 연재(鵞재) : 소리개재의 한자 표기.
- 엽전터 : 신간척지의 북쪽 부분. 옛날 엽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외상리(外上里) : 벗도리 마을의 한자 표기.
- 용의부리 : 송암 마을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저수지 수문의 바로 동쪽이다.
- 원뚝 : 덩금말 서쪽 간척지의 뚝.
- 원안재 : 대숲말에서 신송리 원안으로 넘어가는 재.
- 원과리재 : 진죽리 남쪽 청소면 중심 마을에서 원래부터 있던 취락을 강조하여 원과리재라고 한다.
- 위뜸 : 송암 마을의 동북쪽 부분.
- 위뜸 : 평판너머 마을의 동쪽 부분.
- 유두뿌리 : 송암 마을 위뜸과 벗도리 마을 사이에 남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옛날 간척사업 이전에 있던 갯고랑을 이곳에서 징검다리로 건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보령지방에서는 징검다리를 유두다리라고 부른다.
- 음지뜸 : 덩금말의 남쪽 부분.

- 장자마루보 : 철다리 바로 위쪽에 있던 보.
- 장재마루들 : 벗도리와 소리개재 마을 앞에 있는 들.
- 전마들 : 송암저수지 동쪽 청소면 소재지 사이에 있는 들.
- 전종평(戰宗坪, 준마루들) : 전마들. <1911, 朝鮮地誌資料>
- 점 : 마참 마을과 교동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죽하(竹下) : 1960년대 초 진죽리 3구(坪村, 竹下, 巳洞) 중 하나.
- 죽하(竹下) : 대숲말의 한자 표기.
- 죽하리(竹下里) : 대숲말의 한자 표기.
- 중뚝 : 덩금말과 원뚝 사이에 있는 옛 간척지의 제방.
- 중보 : 정전리 비야들 아래뚝과 진죽리 사이에 있는 보.
- 지충재 : 덩금말 북쪽, 그물매에서 가시배로 넘는 고개. 배암머리뿌리의 남쪽이다.
- 진동 : 송암저수지 북쪽, 유두뿌리 북쪽에 있는 낮은 산능선.
- 진목정리(眞木亭里, 파리지) : 파리재. 진목정이라는 지명은 없어짐 <1911, 朝鮮地誌資料>
- 진목천(眞木川, 파리지니) : 진죽천 <1911, 朝鮮地誌資料>
- 진부리 : 덩금말 서북쪽 큰메에서 吉田이간사지로 향한 산줄기의 끝.
- 진죽1리 : 1반 380, 480, 2반 500-530, 3반 400-420, 4반 370, 430, 5반 370, 580, 6반 340, 460, 7반 330, 350, 540
- 진죽2리 : 1반 팽나무재 방축굴, 2반 소리개재 대숲말.
- 진죽3리 : 1반 평판너머, 2반 송암, 3반 덩굴말.
- 진죽4리 : 1반 마참 샘봉 검은배, 2반 점, 3반 교동, 4반 뺨굴.
- 집박굴 : 덩금말 동북쪽 능선너머의 골짜기. 가시배의 동쪽 길전이간사지의 남쪽이다.
- 쪽다리 : 송암 마을 앞 옛 갯골에 있던 다리.
- 참나무정이 : 문헌에는 진죽리에 있고, 진죽리의 어원이 된 마을이다. 그러나 현재 진죽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명이다. 성연리 성연저수지 제방 지역을 부르던 이름이라고 한다.
- 철다리 : 진죽천에 있는 철교.
- 철뚝너머 : 파리재 마을의 철로 동쪽 부분.
- 청소장(靑所場 : 파리재장의 근래 이름.
- 취보 : 송암저수지와 장곡리 덕굴 사이에 있는 보.

- 큰메 : 덩금말 서북쪽에 있는 산. 이 산의 북쪽 끝 신송간사지를 축조하였다.
- 태춘앞들보 : 장곡리 돌뺨 마을 앞 후동고 밑에 있던 보.
- 통봉 : 덩금말과 평판너머 위뜸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20.5 m이다.
- 통안 : 덩금말 서쪽 중뚝 안에 있는 들. 아주 오래된 간척지이다.
- 파루재(罷漏재) : 파리재의 다른 이름. 도미 설화와 관련하여 옛날 이곳에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었고, 파루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파리재 : 진죽리 남쪽 끝, 진죽천 옆에 있는 마을이다. 청소면의 중심 취락이 되어 마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대된 진죽1리를 통칭하기도 한다.
- 파리재장터 : 파리재에 있던 시장터로 21호 국도의 서쪽 돌뺨 마을 앞에 있다가 철뚝너머로 옮겨지고 최근에는 역전 앞으로 옮겼다. 평춘장, 청소장이라고도 부름.
- 팔인재(八人재) : 파리재의 다른 이름. 8인의 인재가 나기 때문에 팔인재라 하였고 변해서 파리재가 되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전설은 여덟 사람이 있어야 지났다고 해서 팔인재라고 하였다고 한다.
- 팽나무재 : 대숲말과 방축굴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 팽나무재골 : 팽나무재 마을이 있는 골짜기.
- 팽목정점(彭木亭店) : 팽나무주막(팽나무재) <1911, 朝鮮地誌資料>
- 평춘(坪村) : 1960년대 초 진죽리 3구(坪村, 竹下, 巴洞) 중 하나.
- 평춘(坪村) : 파리재의 다른 이름. 청소면의 중심 지역을 통칭하는 말.
- 평춘장 : 파리재장의 다른 이름.
- 평판(平坂) : 평판너머 마을의 한자 표기.
- 평판너머 : 송암 마을 서쪽 능선 너머를 통칭한다.



용의뿌리 용파석(1996)



고속도로 예정지 발굴(1999)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김병모(52)	청소면	성연리	633-1	턱굴	김광연(54)	청소면	장곡리	429	장자울
강태홍(68)	청소면	성연리	30	성굴	김태형(57)	청소면	장곡리	124	턱굴
한달수(57)	청소면	성연리	127	성당	김중현(60)	청소면	재정리	81	늑적굴
유영창(61)	청소면	성연리	31	용못	이복규(60)	청소면	재정리	560	시드물
경찬수(70)	청소면	성연리	731	음지	이성근(65)	청소면	재정리	405	호리울
김재길(66)	청소면	성연리	576	궁갈미	강전형(73)	청소면	정전리	121	느랏굴
이기홍(64)	청소면	신송리	472	고잠(통미)	조종철(52)	청소면	정전리	122	논향굴
이근성(77)	청소면	신송리	227	원안	이명구(72)	청소면	정전리	245-2	평전
김수영(60)	청소면	신송리	62	원안	신종순(83)	청소면	죽림리	121	홍도원
문석근(73)	청소면	야현리	남방재		채병길(61)	청소면	죽림리	659	막은굴
김윤형(71)	청소면	야현리	471	돌빤	이연성(73)	청소면	죽림리	226	홍도원
김성재(60)	청소면	야현리	63-1		이철우(63)	청소면	죽림리	415-3	옷배미
김은재(54)	청소면	야현리	317		심우승(60)	청소면	죽림리	9	돌개
오병환(67)	청소면	야현리	213		이벽성(70)	청소면	진죽리	226	팽나무재
최호구(77)	청소면	장곡리	601	간사지	허 준(86)	청소면	진죽리	110	사동
최학한(70)	청소면	장곡리	338	망선동					